김범 중국 드라마 출연 화제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제3020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11승…후반기 출발 '굿'

코스피, 올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22일 2030선에 바짝 다가서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전날보다 10.43포인트(0.52%) 오른 2,028.93으로 마쳤다. /연합뉴스

직장인 SNS 관리 '좌불안석'

무심코 쓴 비판표현에 인사평가서 불이익 우려
"사생활 구분하고 싶다" 상사와 친구등록 꺼려

어느날 외근을 나간 직장인 A씨는 카카오스토리에 거리 사진과 함께 '탈출이다!'란 글을 올렸다. 며칠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A씨는 팀장으로부터 '탈출이 좋으면 계속 탈출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팀장님은 농담이라 하셨지만 이럴거면 아예 회사를 나가란 뜻 아니냐"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대기업 부장 B씨는 SNS를 하다 같은 팀 C대리의 페이스북을 발견했다. C대리 계정에는 회사 조직에 대판 비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담은 게시글이 있었다. 욕설이 섞인 글도 눈에 띄었다. B씨는 "누구나 고민은 있겠지만 C대리의 SNS를 본 이상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처세 시대'가 왔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재직자와 구직자들의 SNS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면서 직장인 SNS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심코 쓴 표현이나 과격한 게시글이 인사평가나 취업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41%는 '그 사람의 실제 생활 모습이나 인맥,사회성을 파악하기 위해 SNS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가 SNS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평소 언행이나 가치관의 올바름 여부'였다. 인사담당자의 73%는 채용하려는 사람의 SNS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절반 가량은 'SNS 상태가 인사 평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SNS에 갑갑함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홍보대행사 민컴의 차향미 과장은 SNS를 하지 않는다. 차 과장은 "모든 SNS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메시지가 공유·확산되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걱정이 크다"며 "홍보 직군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이런 내용을 SNS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바람은 있다. 하지만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잡코리아의 '직장인 SNS 실태'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36.6%는 SNS 운영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생활 정보 유출'을 염려했다. 특히 20대 직장인에게서 '직장 상사와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게시글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직장 상사의 SNS 친구 신청을 몇달째 미루고 있다는 D씨는 "서로 친구로 등록되는 순간 나의 24시간이 상사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다. 직장과 사생활은 구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민욱 사람인 홍보팀 팀장은 "외국에서는 직원이 SNS 게시글 내용으로 회사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종종 있다. 개인 의견이 회사 입장으로 와전되거나 내부 기밀이 알려진 경우인데 직장인의 SNS가 더이상 개인 공간이 아니란 뜻"이라며 "SNS에 너무 많은 정보를 표출하지 않거나 회사 사람들은 모르는 SNS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과격 표현 게재는 지양해야

때로는 SNS가 채용에 득이 될 수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라면 평소 자유롭게 SNS를 관리하되 과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며 "평소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 관심 기업에 대한 포스팅 등을 정리해 올리면 인사담당자에게 호감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SNS 처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재섭 인크루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평판관리'다. 기존의 평판관리가 면대면을 기본으로 형성됐다면 최근에는 SNS에서 구축된 평판관리가 인맥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며 "SNS가 개인적 의견을 올리는 채널로 사용되는 것이 맞지만 만일 이직을 생각한다면 SNS에 과격한 표현 게재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경제 살리기에 총력"
박 대통령 2기 첫 각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경제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총력전 ▲규제 완화 ▲주도면밀한 정책 점검 등 3가지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살리기 총력전 주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단순한 수치는 정말 필요없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2기 내각에 대해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 혁신, 부패 척결 등 국가 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프로야구 특별판 배포 메트로신문 프로야구 특별판이 배포된 서울 잠실야구장 앞에서 야구 팬들이 신문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번 특별판에는 국내 프로야구 9개 구단과 류현진·추신수 등 메이저리거의 전반기 결산 및 후반기 전망, 야구장 먹거리, 야구 게임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실렸다. /손진영기자 son@

경찰 "변사체 유병언 맞다"

시신·금수원 채취 DNA 일치… 손가락 지문도 확인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확실하다고 22일 밝혔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저녁 변사체의 DNA가 그동안 검경의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가운데 ㈜한국제약 생산 'ASA 스쿠알렌' 빈병에 제조회사가 구원파 계열사로 표시돼 있고, 천 가방 안쪽에 새겨진 '꿈같은 사랑' 글자가 유씨가 직접 쓴 책의 제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변사체가 입은 상의 파카는 고가의 이탈리아제 '로로피아나' 제품이고, 신발도 '와시바'라는 고가의 명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하게 부패해 변사자 지문을 채취하기 곤란했으나 냉동실 안치 후 열 가열법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지문 채취를 시도, 변사자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씨의 지문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채취한 체액과 금수원 내 유씨 집무실에서 채취한 DNA 시료가 정확히 일치했다. 감정 결과를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형 유병일과의 부계 Y염색체와 모계 X염색체(미토콘드리아 확인법)를 대조 확인한 결과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우 서장은 "국과원의 정밀 감정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2차 부검이 완료되면 사인 등이 더욱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과정에서 타인의 물리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변사체 발견된 밭 22일 오전 경찰의 DNA 감식결과 유병언으로 추정된 변사체가 지난달 12일 발견된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의 모 야산 밑 밭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리 인하, 이주열 총재의 선택은?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한은 총재와 처음 만났다. 특히 이날 회동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1시간여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이 총재는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과연, 이 총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미국은 2008년 12월 제로 금리로 낮췄고, 일본도 제로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두 나라는 양적완화 정책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중앙은행(ECB)도 2012년 7월 이후 0%대 금리를 유지해 왔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15%로 낮추고, 시중은행들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를 현행 0%에서 -0.1%로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은은 14개월간 기준금리 동결을 고집해 왔다. 그나마 7월에는 14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13번 내리 이어졌던 만장일치는 깨졌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자는 이자 부담을 덜지만,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당장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되살아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한은의 독립성·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뉴스&뉴스

'4선' 유흥수 일본 주재 한국대사 내정

●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이 내정됐다.

경남 합천 출신의 유 내정자는 경찰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 때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알선수재' 원세운 전 원장 1년2월로 감형

●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개성공단 기반 시설 국제표준인증 추진

● 개성공단의 기반 시설에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공단 내 버스사업소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과 정배수장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각각 추진 중이라고 22일 통일부는 밝혔다.

18일만에 80% 부패? 술병은 왜?

변사체 의혹… 초동수사 미흡 검경 향한 비난 쏟아져

지난달 16일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차 유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80% 정도 부패가 진행돼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 경찰은 "수년간 사체를 봐왔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번 변사체는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체 발견 당시 키 등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아 유씨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발견 당시 변사체는 겨울 외투 차림에 벙거지를 쓰고 있었다. 시신 옆에는 천 가방 안에 소주 2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은 "회장님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원파 신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어떤 경위로 홀로 아무도 없는 밭에서 죽어갔느냐 하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초동수사 미흡으로 40일 넘게 그림자만 쫓아다니며 수사력을 낭비한 검경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22일 "변사체 주변에 유류품이 다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간과했는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며 "그때 채취한 유류품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확인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변사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도 유씨와의 관련성을 놓치고 단순노숙인의 변사로 판단해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 서장을 대기 발령했다. /김민준기자

태백역 열차끼리 정면 충돌

70대 여성 1명 사망·92명 중경상…국토부 위기대응 '심각' 발령

22일 오후 5시53분께 강원 태백시 상장동 모 아파트 뒤쪽 태백역-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와 청량리발 강릉행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 1량과 여객열차 1량이 각각 탈선해 박모(77·여·경기 안산시)씨가 숨지고 92명이 중경상을 입어 태백지역 3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4명은 크게 다쳤고 나머지 대부분은 경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관광열차에는 승객 39명과 승무원 4명, 여객열차에는 승객 63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110명이 타고 있었다. 노약자가 주로 탑승한 여객열차는 태백역을 출발한 지 30여 초 만에 승무원의 안내 방송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나 피해가 컸다.

사고 직후 119 등이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상당수 승객은 충돌 당시 굉음에 놀라 열차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단선 구간으로, 평소 일반 차량 통행이 많고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두 개의 열차가 문곡역에서 정상적으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열차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4단계 위기대응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을 발령하고 사고 대응에 나섰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우리는 여성 예비군" 2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육군51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창설식을 가진 51사단 여성 예비군들이 사격 실습에 나서고 있다. 51사단 여성 예비군에는 2명의 다문화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교사' 김형식 구속기소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신의 친구 팽모씨를 시켜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팽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용도변경안 추진이 완전히 무산되자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팽씨에게 빨리 송씨를 살해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3월 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력가 송모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시간제 보육사업 시범 실시

서울시 강서구가 오는 28일부터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동대문, '이동치과 진료'

서울시 동대문구는 이달 16일부터 8월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차에 걸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치과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내 5개 주민센터를 순회 진료하게 되는 이번 의료봉사는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협약해 추진하고 있다.

하조대 해수욕장 반값 지원

서울시 송파구가 자매 도시 강원도 양양군과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해수욕장을 방문한 송파 구민들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 개최

25일부터 29일까지 37개국 장·단편 총 97편 상영

제2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가 25일 개막한다.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어린이와 소통하기 위해 구로구가 마련한 축제다. 지난해 10월 제1회 어린이 영화제가 열렸고, 올해는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위해 방학 기간인 이달 말로 영화제 일정을 변경했다.

'새처럼 꿈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영화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구로·신도림CGV,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구민회관 등 곳곳에서 열린다.

◆테크노마트서 개막식… 개막작 '프렌즈(여름이 준 선물)'

영화제는 25일 오후 6시30분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5일동안 펼쳐진다.

개막식은 방송인 하하와 아역배우 박사랑·박희건이 사회를 보며 배우 후지이미나, 여진구, 추상미, '우아한 거짓말'의 이한 감독 등이 레드 카펫을 밟는다. 국악소녀 송소희 양과 걸그룹 티아라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개막작은 우리나라 영화 '프렌즈(여름이 준 선물)'가 선정됐다. '내 마음의 풍금'의 이영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죽음을 관찰하고 싶은 세 소년의 다소 엉뚱한 모험을 통해 주인공들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 개막작 '여름이 준 선물'.

◆37개국 장·단편 97편 상영… 세계 영화제 우수작, 국내 미개봉작 다수

이번 영화제는 경쟁·비경쟁 부문, 장·단편 영화 총 97편이 선보인다.

'비포와 친구들', '시계 심장을 가진 소년', '꿀벌 하치의 모험' 등 장편 20편은 구로CGV와 신도림CGV에서 상영된다.

국내에서는 감상하기 힘든 미개봉작 작품들은 물론 세계 3대 영화제와 세계 4대 애니영화제의 초청·수상작을 대형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 관람료는 5000원이다. 단편은 상영 시간을 고려해 주제별로 5~8개 작품씩 묶어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구로구민회관에서 상영된다. 개인관람은 4000원, 단체관람은 2000원이다.

◆영화학교, 즉석피자 이벤트도 열려

재독동포 2세 영화감독 오명훈 씨의 영화학교도 26일부터 3일간 열린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진행되는 영화학교에서는 참여자들이 감독, 배우, 스텝이 돼 기획, 촬영, 편집 등에 참여해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본다. 제작된 작품은 폐막식 때 상영될 예정이다.

25일 오전 9시30분부터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앞마당에서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피자먹고, 영화보고' 이벤트도 벌인다. 도미노피자 협찬으로 파티카를 이용해 800인분 피자를 즉석에서 구워 무료로 제공한다.

◆29일 구로구민회관에서 폐막식… 우수작 11편 선정

폐막식은 29일 오후 6시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탤런트 안선영의 사회로 열린다. 폐막작은 2013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장편 공식 초청작이자 국제영화제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남미영화 '내 이름은 아닌아'가 상영된다. 폐막식에서는 공모 작품 중 우수작을 선발해 대상 3편에 총 900만원, 최우수 8편에 총 8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

"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보위해 영화제 기획했죠"

–조직위원장 이성 구로구청장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고 싶다. 지난 4년 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 구립 어린이집 17개를 포함해 70개의 어린이집을 증설했고, 동네별 작은 도서관 등 총 45개의 도서관을 확충했다. 전국 최초로 발판높이 등 통학 차량 시설 기준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조례도 만들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교육과 보육 분야의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컨텐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문화 사업을 모색하다 어린이 영화제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제2회 서울어린이 영화제는 지난해 1회 영화제보다 훨씬 풍성하다. 지난해 21개국이던 참여국이 올해는 37개국으로 확대됐다. 출품 영화의 수준도 크게 향상 됐다. 구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들이 영화를 통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현재의 아이들, 어른이 된 옛 아이들 모두를 위한 축제"

–집행위원장 김한기 영화제 이사장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순수한 꿈을 배울 스승이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는 이런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해 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도 감상해 보면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다. 어린이 영화제는 현재의 아이들과 어른이 된 옛 아이들 모두를 위한 축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의 이사장직을 맡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잊어 버렸던 옛 꿈들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 1년 내내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가 구로 곳곳에서 상영되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5일이란 짧은 기간에 열리는 이번 영화제를 열심히 준비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자사고 지정취소 올해는 어려워"

교육부는 평가 결과 미달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올해는 지정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010년 3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2015년 2월까지 5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5개 자사고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자사고 평가결과를 완료해 보고해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에도 지정 취소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순직 소방관 영결식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이 22일 강원도청 별관 광장에서 열렸다. 동료 소방관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박스·시신 피해국 인계

우크라이나 반군, 조사단에… 조종사 대화 기록 없을 수도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수습한 탑승자 시신과 블랙박스를 피해국 조사단에 인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시신을 실은 냉동열차가 반군이 장악한 추락현장 인근 소도시 토레즈를 떠나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 지역인 하리코프로 향했다.

시신은 하리코프에 설치된 네덜란드 조사본부를 통해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이송된 뒤 신원확인을 거쳐 가족에게 인도된다. 현재까지 사망자 298명 가운데 95%에 달하는 282구의 시신이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열차에는 약 200구의 시신이 실려 있으나 하리코프에서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하리코프까지는 10~12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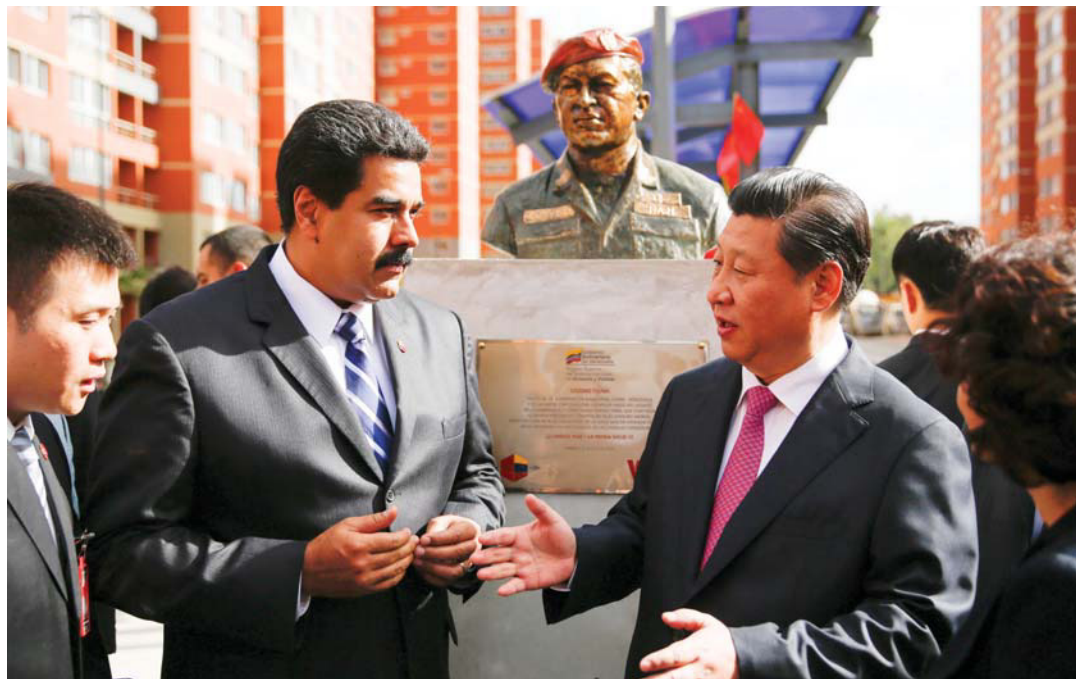
반군이 추락 현장에서 수거한 여객기 블랙박스도 확보됐다. 반군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알렉산드르 보로다이 총리는 22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전달하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조사단에 블랙박스를 넘겼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민이 21일(현지시간) 스키폴공항에서 말레이항공소속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당국은 "블랙박스가 약간 손상됐지만 온전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군이 내놓은 블랙박스가 사태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객기가 미사일에 갑자기 피격되면서 조종사들의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블랙박스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신과 블랙박스 인계는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서방의 압박 속에 이뤄졌다. 최근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에 상륙함 수출을 중단하라며 프랑스 정부에도 압력을 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러시아에 상륙함 공급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프랑스의 입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와 평소처럼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무기수출 금지 등을 포함해 더 강도높은 '3단계 제재'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큰 손' 시진핑, 베네수엘라에 40조 차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우고 차베스 동상' 앞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 주석은 방문 기간 4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차관을 베네수엘라에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바마 44억짜리 호화주택 구입설

캘리포니아 휴양지… '대통령들의 쉼터'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의 휴양지 '란초 미라지'에 425만 달러(약 43억6000만원) 상당의 호화 주택을 소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오바마 부부가 란초 미라지에 저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부부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저택은 큰뿔 양 보호구역이 있는 전망좋은 언덕 위에 있다. 1993년 지어졌으며 침실 4개, 욕실 4개를 갖춘 본관과 침실 3개, 욕실3개 규모의 별채로 돼 있다. 이밖에도 폭포가 있는 풀장과 2개의 스파, 모래 벙커가있는 퍼팅 그린 등이 있는 호화 저택이다.

퇴임 후 란초 미라지에 정착하는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가 처음이 아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대통령이 란초 미라지에 머물렀다. /조선미기자

Квартиры покупают по фэншуй и картам Таро

Новосёлы молятся и колдуют. Юристы и риелторы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встречаются с теми, кому важны не только правовые вопросы

СВЯТОСЛАВ ТАРАСЕНКО

집 잘 팔려면 풍수지리 공부해야

metro Russia

부동산 중계업자 필수과목

모스크바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집 잘 파는 부동산 중계업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풍수지리가 등장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올레그 수호프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생일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번호, 건강에 좋다는 방위와 동일한 집의 번지수나 아파트 호수를 찾는 구매자들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구매자의 취향을 고려해 직접 풍수지리와 별자리 운세를 공부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호프는 "운수가 좋다고 여겨지는 기일에 맞춰 이삿날을 정하는 사람도 있다"며 "특히 유교나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미신과 관련된 의식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터무니 없는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구매자가 미신을 믿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단지 집을 팔 목적으로 구매자를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뱌토슬라프 타라센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브라질 월드컵 10점 만점에 9.25점

metro Brazil

피파의 조셉 블래터 회장이 브라질 월드컵에 10점 만점에 9.25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래터 회장은 "브라질 월드컵에 10점 만점 중 9.25점을 주기로 했다"며 "남아공 월드컵 이후로 계속 나아지고 있다.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아공 월드컵은 당시 9점을 얻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교황님은 분명 아르헨티나의 패배에 실망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축구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18년 월드컵 전에 인종차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이스라엘 무차별 공습에 팔레스타인 난민 10만명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2주째 공습하는 과정에서 10만 여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WRA)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난민 발생 규모는 2009년 가자지구 충돌 때의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탱크를 동원해 가자 중심부의 알아크사 병원을 포격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한 10여 명이 숨졌다.

2주간에 걸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570명을 넘어섰다.

한편 유엔과 아랍연맹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즉시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폭력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조건 없이 폭력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이날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2028.93 (+10.43)

코스닥 564.93 (+3.18)

금리(국고채 3년) 2.51 (−0.01)

환율(원·달러) 1025.00 (−2.5)

뉴스&뉴스

하이네켄의 새로운 디자인
22일 서울 명동 이비스 호텔에서 모델들이 새롭게 디자인된 하이네켄 뉴 캔(New Can)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휴가 피크는 '8월초'

● 우리나라 직장인은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36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간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8월 중순, 7월 하순, 8월 말 순으로 휴가 계획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21%는 휴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였으며 2위는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 가고 싶어서'였다.

/장윤희기자 unique@

6월 전월세 거래량 6.7%↑

● 6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 6월의 전·월세 거래량이 11만2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증가했으며, 5월보다는 7.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감소했으나 2월부터는 지난해 동월 대비 줄곧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매 거래가 위축되면서 그 수요가 전·월세로 옮겨온 결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1~6월) 전체로는 거래량이 75만1328건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3.1% 증가했다.

/김두탁기자 kimdt@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국제 금값, 바닥 찍고 반등세 탈까?

지정학적 우려에 신흥시장 수요 꾸준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에 투자하려면 올해가 최적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11% 뛰었다. 금 투자가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을 제치고 최고 수익률을 낸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라크 내전, 최근에는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 추락까지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불가리아, 포르투갈 은행위기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것도 금값을 끌어올리는 데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꾸준히 금 매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값 상승에 베팅하는 헤지펀드 비율은 지난주 5.4% 늘면서 2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금값 하락에 대한 베팅은 5주 연속 감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금값이 바닥을 쳤다"면서 "본격적인 반등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마이클 위드머 BoAML 금속 투자전략가는 "신흥시장의 수요가 꾸준하다"며 "중국과 인도가 금을 비롯한 금속자원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실질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금시장의 최악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올해 말에는 1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 금 수요국인 중국의 올해 금 수요가 1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인도에서도 올해는 금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점을 꼽았다.

향후 금값 강세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 제프리 커리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금값은 올 연말께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이 속도를 낼수록 금 값은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소시에떼제네랄의 미셸 헤이그 원자재 리서치 대표는 "올 4분기까지 금값이 7%는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은퇴자 협동조합 '드림드림' 설립 22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제1회 KT드림티처 소통의 날' 행사에서 드림티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는 은퇴자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인 '드림(Dream)드림'이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KT 제공

통합재정수지 적자 8조 육박

올해 들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적자는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4월까지의 누적 적자 3조9000억원에 5월 중 발생한 3조9000억원의 적자를 합한 수치다.

지난 5월 재정수지의 악화는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 4, 7, 10월과 법인세 납부월인 3월에는 상대적으로 국세수입이 늘고 나머지 달에는 그렇지 않은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5월까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3조8000억원 적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조2000억원보다는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5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149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000억원 늘었다.

5월 중 국세수입은 13조2000억원이며, 누적으로는 87조8000억원이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6000억원, 부가세 6000억원, 교통세가 2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6000억원 줄고 관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5월까지 총국세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7%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세외수입은 10조9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줄고 기금수입은 50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57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었다. /유주영기자 boa@

15년차·전용 84㎡·2억4000만원

전국 평균 아파트

전용면적 84㎡로 입주 15년차를 맞은 매매가 2억4161만원의 아파트가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는 전국 아파트 882만7407가구의 입주연차, 면적, 매매가격을 조사해 중간값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평균아파트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의정부 호원동에 위치한 호원가든3차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4500만원으로 가격비중 상위 49%, 주택형은 105.78㎡으로 면적비중 상위 49%, 입주연도는 1999년으로 연차비중 상위 49%에 해당했다.

이외에도 시흥시 장현동 대동아파트, 남양주시 도농동 한신아파트,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3단지, 대구 북구 대우아파트, 경남 창원 대동청솔 등도 평균 아파트 조건과 가까웠다.

서울 평균 아파트는 2001년 입주한 전용면적 85㎡, 매매가 4억2500만원인 아파트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면 입주는 2년 짧고 면적은 약 3㎡ 넓으며 가격은 1억8000만원 정도 높았다. 평균에 가장 부합한 곳은 서대문구 연희동의 성원아파트다.

또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의 평균아파트는 면적이 2㎡ 크고, 매매가격은 7750만원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입주연차는 2년 길었다.

고가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 평균은 입주년도 1998년, 면적 112.39㎡, 매매가 7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크고, 대형 아파트가 많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에서는 2000년 입주, 면적은 107.43㎡, 매매가격은 3억2000만원짜리가 평균 아파트로 추출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 모습을 10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약 9.9㎡ 커졌고, 매매가는 약 1억1128만원 상승했다. 입주연차도 5년 정도 늘었다.

/박선옥기자 pso9820@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허니문 주말상담회

Honeymoon

예비신랑 예비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던킨 도너츠
공평 갤러리
하나투어 본사 2층
삼성생명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피자헛
종각역

허니문 주말상담회 일시
- 2014년 7월 26일(토요일)
- 2014년 8월 30일(토요일)

허니문 주말상담회 장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 2층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EVENT 01 하나투어 마일리지 40만 마일리지 지급!

EVENT 02 면세점 5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지급!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발 고객)

BEST 01

괌 ★ 전일정 호텔식 5일
쉐라톤 라구나 스윗룸
1,985,200부터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괌(4)
- 최고급 허머리무진 시내관광 및 야경투어
- 커플당 50만원 할인혜택
- 최고급 앙사나 스파 30분 포함, 미니바 1회 오픈

BEST 02

하와이 ★ 반자유 6일/7일
힐튼 하와이안빌리지
2,627,100부터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하와이(4/5)
- 레인보우 오션뷰 무료 룸 업그레이드
- 쌍당 50만원 할인혜택, 와이켈레 프리미엄 아울렛 포함
- 하와이 추천 스팟투어 및 맛집투어 포함

BEST 03

이태리 ★ 로마가이드 7일/8일
세미팩–피렌체/베니스 자유여행
2,836,600부터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이태리(5)
- 준특급 4성급 호텔
- 이태리 전문 가이드와 함께 로마 전용차량으로 관광
- 로마→프렌체→베니스 열차 2등석 포함

BEST 04

보라카이 ★ 세일링 보트 5일
가든리조트–프리미어룸
1,465,000부터
▶ 매주 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보라카이(3)
- 아일랜드 호핑투어 포함
- 사전예약 쌍당 30만원 할인
- 피로를 풀어줄 황제 마사지(약 70분 포함)
- 공동경비 포함, 보라카이섬을 둘러보는 버크카 1시간 포함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는 포함입니다.(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경비] 현지에서 지불해야하는 필수 경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페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상담팀 02) 2127-1234

HNT 하나투어

스마트폰으로 주식 사고팔면 통신비 준다

증권업계 MTS 고객 잡기 경쟁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늘면서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으로 고객을 잡으려는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재개와 맞물려 휴대폰 신규 개통 수요를 주식 투자와 연결하려는 증권사 간 경쟁이 특히 치열해졌다.

대신증권은 올 초부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사이보스터치'로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통신비 또는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

기존 스마트폰 보유 고객은 MTS 거래규모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대신증권은 거래대금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MTS 고객에게는 매달 3만원, 5000만원 이상에게는 매달 5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준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주식거래를 할 경우 매달 2만원의 통신비 지급과 함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5억원 넘게 거래하면 수수료 면제와 함께 매달 5만원의 통신비를 받는다.

대신증권 홈페이지에서 이통 3사의 스마트폰을 신청하고 MTS로 주식(ETF 포함)을 월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일정 조건 하에 24개월 동안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준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4월 한 차례 진행한 통신비 지원 행사를 재개하고 연중 진행한다.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알뜰폰에 가입하는 고객이 자사 MTS(제휴 앱 제외)를 통해 월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24개월간 매달 3000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주식 대신 선물 1계약 이상 또는 옵션 50만원 이상 거래해도 통신비 지원 대상이 된다.

거래규모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 최고 월 주식 5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월 5만원의 통신비가 지급된다.

기존 스마트폰 보유 고객도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마찬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양증권은 스마트폰 단말기 대금 전액(실부담금)을 지원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동양증권 홈페이지에서 특정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자사 MTS인 'T레이더'로 매달 100만원 이상 주식거래하는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단말기 할부금(통신사 할인금액 공제한 금액)을 24개월간 분할 지원한다.

KDB대우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MTS가 아닌 계좌 개설과 연계한 통신비 지원 행사를 열고 있다.

KT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 중 대우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24개월간 매달 통신비 5000원을 제공한다.

주식(ETF 포함)을 월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월 1만원을, 월 100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1만~5만원을 추가로 준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향후 MTS를 통한 주식거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젊은 층을 포함한 직장인 등은 장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 관련 지원을 통해 MTS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노력이 이와 같은 행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오피스텔, 이젠 투룸시대

소형아파트 대체 2~3인 가구에 인기

원룸으로 대표되던 오피스텔이 투룸형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30~50㎡대의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 최근 잇달아 선보이며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를 겨냥한 30㎡ 이하 소형 원룸형 상품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2~3인 가구로 타깃을 이동, 건설사들이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투룸형 오피스텔 개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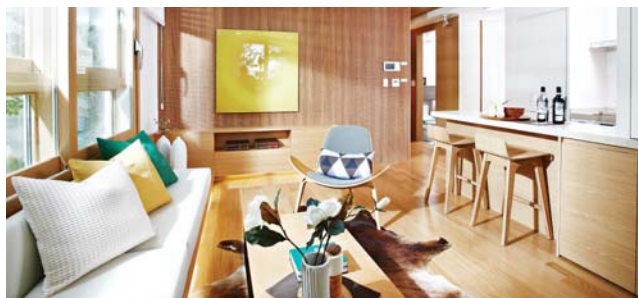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3인 가구는 전체 1735만9333가구의 45.5%에 해당하는 790만1034가구에 이른다. 특히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에서 2~3인 가구가 2020년 50.5%, 2025년 51.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투룸 오피스텔의 증가가 예측되면서 투룸형 오피스텔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라온건설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상 4-2-2블록에서 167실 규모의 '진주혁신도시 라온 프라이빗 시티'를 분양 중이다.

요진건설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일대에 일산 요진와이시티 오피스텔 '테라스 앤 타워'를 선보였다. 투룸형을 비롯해 테라스형, 펜트하우스형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풀퍼니시드 빌트인 가전가구 시스템을 적용했다.

문영종합개발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공급한 '비즈트위트 레드'는 오피스텔 166실과 도시형생활주택 78가구 모두 투룸타입으로 구성됐다. 또 대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공급한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는 투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53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2~3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투룸형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투룸형으로 설계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58타입 거실.

소주도 얼려서 드세요 롯데주류 모델들이 22일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처음처럼 순한 쿨' 파우치 타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파우치팩 형태로 제작돼 슬러시처럼 얼려 보관한 뒤 시원하게 음용할 수 있으며 야외활동을 할 때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연합뉴스

연이자가 겨우 1%대…

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하 결정

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떨어지며 연이자 1%대 상품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최근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내렸다. 인하폭은 보통 0.1~0.2%포인트이며 최대 0.6%포인트에 이르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일반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 낮춰 1년제 기준으로 금리가 연 1.90%가 됐다.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회전예금 '두루두루 정기예금' 금리도 0.1%포인트 낮아져 1년제 기준으로 금리가 1.95%다. 일반정기적금은 금리를 0.2%포인트 내려 1년제 우리자유적금 금리는 2.15%를 주던 게 1.95%로 인하됐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1년 기준으로 2.40%를 주던 'e-플러스 적금'의 금리를 1.80%로 0.6%포인트 인하했다. 여성 전용 상품인 '행복출산 적금'도 0.1%포인트 내려 1년 기준으로 금리가 1.90%다.

외환은행은 이달 들어 '매일매일 부자적금' 금리를 2.10%에서 2.00%로 낮췄다. '1004 나눔적금'(2.00%)과 더불어 사실상 1%대 금리다.

농협은행은 1년 만기 일반정기예금의 금리가 1.95%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기적금 상품군의 금리도 조만간 일괄적으로 0.3%포인트씩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최근 자유적립식 '프리미엄 적금'의 금리를 1년제 기준 2.20%에서 2.00%로 0.2%포인트 내렸다. 스마트폰 예·적금 금리도 0.1~0.2%포인트 인하했다. 만기지급식 일반정기예금(2.00%)과 이자월지급식 '20대자립 주택청약예금'(2.05%)도 사실상 금리가 1%대다.

/김민지기자 minji@

"'광대역 LTE-A' 빠른 것 맞나요?"

지원 단말기 제약·전용 콘텐츠 부족 한계 지적

이동통신 3사가 본격적인 '광대역 LTE-A' 시대를 선언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1일부터 '광대역 LTE-A' 전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대역 LTE-A의 최대 속도는 225Mbps로, 기존 LTE에 비해 3배, 광대역 LTE나 LTE-A에 비해 1.5배 빠르다. 이에 따라 1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LTE 서비스는 1분50초가 소요되는 반면, 광대역 LTE-A는 37초면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대역 LTE-A 전국 시대가 본격화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이 같은 속도를 체감하는 이들은 드물다. 아직 지원 단말기가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LG전자도 25일부터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G3 Cat.6(카테고리6)'를 이통3사를 통해 국내 출시하지만 여전히 선택권이 좁다는 사실엔 변함없다.

이번에 LG전자가 출시하는 'G3 Cat.6'는 지난달 5월 출시된 'G3'와 동일한 사양과 디자인을 갖췄다. 다만 G3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퀄컴 스냅드래곤 801을 장착한 반면, G3 Cat.6는 광대역 LTE-A 서비스 제공을 위해 'LTE 카테고리6'를 지원하는 최신 퀄컴 스냅드래곤 805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G3의 QHD 고해상도와 '레이저 오토 포커스' 등 뛰어난 카메라 성능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빠른 속도까지 자랑한다.

하반기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4'나 팬택의 신형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6' 등도 광대역 LTE-A를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출시 시점이 불명확해 광대역 LTE-A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 걸림돌도 많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다. 팬택의 회생 여부도 새로운 단말기 라인업 확대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울러 애플 '아이폰6' 역시 광대역 LTE-A 지원을 놓고 오리무중인 상황이어서 광대역 LTE-A가 확산될지 의문이다.

콘텐츠 부족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대역 LTE-A 서비스가 본격화됐지만 빠른 속도를 체감할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 최근 이통3사가 광대역 LTE-A 전국 서비스 개시와 함께 영상 콘텐츠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웹 서핑을 가장 많이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은 단말기에 대한 제약과 빠른 속도에 따른 활용할만한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하반기 단말기 추가 라인업 확대와 교육, 고사양의 게임, 고해상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즐기다보면 자연스럽게 이용자들도 광대역 LTE-A 서비스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우리가 한비광-담화린 22일 중구 예장동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유명만화 열혈강호의 주인공 코스프레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 700명 감원 예고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우체국 100개를 없애고 총 700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속되는 우편사업의 적자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 16일 취임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임 장관 업무보고서'를 전달했다.

우본은 ▲6급 이하 창구망 조정을 통해 100개 우체국을 없애고 300명 인원 감축 ▲본부·직·청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한 180명 인원 감축 ▲우체국 창구 인력 효율화를 통해 110명 인원 감축 등 총 700명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350억원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우본은 우편사업 부문에서 2011년 439억원, 2012년 707억원, 2013년 246억원, 2014년 585억원(예상) 등 적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우본은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대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본은 우체국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공백은 우편 자동화설비 보급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우본은 올해 순로 구분기 13대, 대형 통상구분기 1대, 고용량 소포구분기 1대, 무인 우체국 7국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뉴욕 공중전화 와이파이존 변신

구글 삼성 "광고 효과는 덤"

구글이 공중전화 부스를 와이파이 기지국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중전화가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새로운 쓰임새를 갖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의 외신들은 22일(한국시간) 구글을 비롯해 삼성, IBM, 시스코 등 대형 IT기업들이 미국 뉴욕시의 공중전화 부스를 '무료 인터넷 존'으로 바꾸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시에는 7300여개의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이 현실화하면 공중전화부스에서 무료 인터넷을 쓸 수 있고 기존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꿔 전화 요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업이 공중전화부스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른 기업에 광고부스를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 글로벌 도시 뉴욕은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공중전화부스가 있는 곳은 차량을 포함한 통행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뉴욕 공중전화 부스의 3분의 2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맨해튼에 있다.

구글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무인기를 띄울 각오도 하고 있다.

뉴욕에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박성훈기자 zen@

페이스북 콘텐츠 저장했다 나중에 본다

세이브 기능 22일 추가…PC에서도 가능

페이스북은 22일 뉴스피드에서 보이는 정보를 저장했다가 추후에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세이브 기능을 도입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라오는 흥미로운 기사 링크, 장소, 미디어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기기에 상관 없이 페이스북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PC에서도 저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장한 정보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며 '나만 보기' 또는 친구들과의 공유 여부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보기' 혹은 세 줄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이브'를 이용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화면 좌측의 '세이브'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물론 iOS 방식의 스마트기기에서도 세이브 기능을 쓸 수 있다. /박성훈기자

기아차 쏘렌토 후속, 이런 모습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부각 눈길

기아차 쏘렌토 후속 모델의 렌더링 이미지. /출처=기아월드넷

기아자동차가 오는 8월 공개할 쏘렌토R 후속 모델(UM)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최근 기아월드넷에 실린 쏘렌토R 후속 3세대 모델은 기아차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2세대 쏘렌토R의 경우 K5처럼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매끄럽게 이어진 스타일이지만, 3세대 모델은 라디에이터 그릴을 독립적으로 부각시켰다.

헤드램프에는 주간주행등이 위쪽에 배치됐고, 안개등은 여러 개의 LED 타입으로 범퍼 안에 내장돼 있다. 뒷모습에서는 스포티한 스타일의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 적용이 눈에 띈다. 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M클래스나 폭스바겐 투아렉과 유사한 스타일이다.

3세대 모델의 플랫폼은 올 뉴 카니발과 공유하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2륜구동과 4륜구동이 출시된다. 서스펜션은 앞 '맥퍼슨 스트럿', 뒤 '인 휠 타입 멀티링크'로 구성됐다.

엔진의 경우 국내와 유럽에서는 최고출력 202마력의 2.2 디젤이 주력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V6 3.3 GDi와 2.0 가솔린 터보 등 2종류가 유력하다.

첨단 장비도 대폭 늘었다. 차체 주변을 4대의 카메라로 비추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후측방 경보 시스템, 하이빔 어시스트,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액티브 후드 등 기아차의 기술력이 총동원됐다. 초고장력 강판 비율도 2세대 모델에 비해 대폭 늘려 차체 강성을 높였다.

기아차 측은 "신형 쏘렌토는 최근의 아웃도어 문화의 확산, 안전성 및 다용도성 등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발됐다"면서 "존재감 넘치는 디자인과 기존 대비 전장이 90mm이상, 축거가 80mm 이상 늘어나 실내가 쾌적하고 넓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아차 담당자는 "쏘렌토R 후속은 8월 또는 9월 중에 출시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LA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쏘렌토는 2002년 처음 출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전 세계에서 206만9033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160만대가 해외에서 팔렸으며, 2010년부터는 기아차 미국공장에서도 생산됐다. 특히 2011년에는 14만6017대가 판매돼 미국 출시 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아자동차는 신형 쏘렌토를 선보이면서 하반기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똑똑한 앱이 스마트폰 지능↑

사진인화, 커버앤, 팝업콜 등 기능 다양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가 앱이기 때문이다. 앱은 MS워드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 곰 플레이어 등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처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개념이다. 통신사들이 선보인 다양한 앱을 소개한다.

22일 LG유플러스는 'U+포토 사진인화' 앱을 공개했다. 이 앱은 사진 인화는 물론 액자 등 관련 액세서리 구입까지 사진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PC로 옮기는 별도의 과정 없이 사진 인화를 주문할 수 있어 여름 휴가철 그 어느 때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U+포토 사진인화 앱은 통신사 상관 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커버앤' 앱을 출시했다. 커버앤은 잠금해제 없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와 잠금화면 이미지를 고객 취향대로 설정할 수 있는 잠금화면 서비스. 사용법은 스마트폰 화면 가운데를 2번 두드리면 잠금 화면이 위아래로 열리면서 고객이 지정한 아이콘들을 보여준다. SK텔레콤은 잠금 화면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하면서도 고객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카메라 등 고객이 즐겨 이용하는 아이콘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멀티태스킹이 일상화된 현대인의 니즈에 주목한 앱이 있다. KT의 '올레 팝업콜'이 그 주인공. 올레 팝업콜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인터넷 서핑,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전화를 화면을 보면서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스팸차단 앱 '후후'를 추가로 설치하면 스팸을 포함한 발신자 정보도 표시해준다. /서승희기자 ssh814@

LG유플러스의 'U+포토 사진인화' 앱과 SK텔레콤의 '커버앤(Cover&)앱. /LG유플러스·SK텔레콤 제공

'리눔&아티가' 팝업스토어 오픈 2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리눔&아티가' 매장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4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8층 더웨이브 매장에서 유럽 정통 리빙 브랜드 '리눔&아티가'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2일 전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삼성멘토링 참가 대학생 누적 9만명

'1:5 멘토링' 인기…업무 경험·노하우 습득

삼성의 대표적 멘토링 프로그램 '삼성멘토링'이 대학생 참여자 누적 9만명을 돌파했다.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4년만이다.

삼성은 지난 4년간 삼성멘토링에 대학생 멘티 9만명과 삼성 임직원 멘토 2만명 등 총 11만명이 참여해 2만5000건 이상의 멘토링이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삼성 임직원 멘토 6700명과 대학생 멘티 2만50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멘티의 경우 67% 이상이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로, 진로와 취업에 고민이 많은 취업 준비생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삼성멘토링은 삼성 임직원들이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특히 멘티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관심 직군의 멘토를 직접 선택해 맞춤형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멘토링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1:5 멘토링'은 멘토 1명당 멘티 5명이 한팀이 돼 친밀하고 깊이 있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 하반기에는 삼성 임직원이 직접 전국으로 출신 대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멘토링'과 영업·마케팅·연구개발 등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해 집중 멘토링하는 '마스터 클래스'가 연말까지 진행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멘토링은 임직원들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멘토링으로 매년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삼성이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최경환 '일자리 창출'…재계 '규제개혁'

경제5단체장 회동, "우리 경제 중요 전환점" 인식 같이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내유보 과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회동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여부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의 해법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한덕수 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시스

정부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정부에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골든타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구조개혁의 킹핀이라 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강도 높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사전규제는 일을 벌이는 것을 막는 것이고, 사후규제는 말썽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사전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꿔 창업과 신사업 등 일을 벌이는 것이 쉽도록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공격적인 경제운용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경제는 심리다. 경제주체 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일이지만 상당부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지금은 금리라든지, 부동산정상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회장도 규제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사내유보 과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 회동에서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강화되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며 "현재 내수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적기에 처리돼 경제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또 "최근 사내유보 과세 논의의 경우, 부작용이 정책적 실효성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며 "좀더 폭 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효성,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5천만원

효성이 22일 장애인 의료재활 전문기관인 푸르메재단에 저소득층 장애아동·청소년 의료재활과 가족 지원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못하는 아동·청소년에게 6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치료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장애아동 본인 치료비뿐 아니라 비(非)장애형제의 교육비도 지원해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족여행도 지원해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만들도록 돕는다.

장형옥 나눔봉사단장은 "효성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지속적으로 장애어린이 재활치료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준 효성에 감사하다"며 "장애인 재활치료 전문지원기관으로,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 5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인 '컴브릿지(버려지는 전산기기 재활용)' 사업에 전산자재 800여대를 기증한 바 있다. 2013년 은평구 증산동에 설립한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이 구매고객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SK해피스쿨, F&B 서비스 전문가 양성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대표적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SK 해피스쿨이 F&B분야에 특화된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F&B 서비스 매니저 특별 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SK 제공

두산인프라코어, 기능장 핸드프린팅 조형물

두산인프라코어는 22일 인천 화수동 두산인프라코어 글로벌 R&D 센터 앞에 기능장들의 핸드프린팅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형물은 기능장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배 사원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10명을 포함해 총 103개가 설치됐다.

기능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상급 숙련기능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국가기술자격이다. 기능장은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5~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거나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직 사원들이 전문 기술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전문가 육성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는 학습동아리와 기능장 실기 대비반을 운영하며 기술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35개 학습동아리에서 251명이 활동 중이며, 올 상반기 기능장 합격자 10명 중 6명도 회사 학습동아리나 대비반에서 활동했다.

올 상반기 기능장 합격자 중 최고령자인 구장회 직장(56)은 "나이가 많아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직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직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배관 기능장에 도전했다"며 "앞으로 동료 전체가 기능장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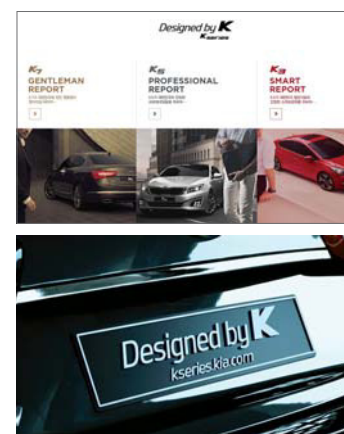
/김두탁기자 kimdt@

자동차 넘어 '컬처' 디자인하다

기아차 'Designed by K' 캠페인 '눈길'

멋진 공간에 알 수 없는 불들이 켜지며 'Designed by K'라는 메시지와 함께 '디자인은 동사이자 영향력'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후 자동차의 다양한 주행 장면 그리고 바버샵, 비스포크, 소셜 다이닝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Designed by K'로 끝나는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마무리된다.

11일부터 전파를 탄 기아차의 'Designed by K' 캠페인 광고다. 보통 자동차 광고는 하나의 자동차 메시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멋진 주행으로 끝나지만, 이번 광고는 기존의 틀을 깨고 사람과 라이프스타일에 더 비중을 뒀다.

이 광고를 기획한 이노션은 "K시리즈의 차별화한 패밀리룩을 기반으로 도시의 라이프, 문화, 트렌드와 경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니페스토(주제를 가지고 알리고 공유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것)다"라고 설명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당신이 원하는 직장 찾아줍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잡플래닛'

장·단점, 경영진 평가, 연봉 한눈에 직장인 리뷰 하루 1000여 건 등록

윤신근(왼쪽) 황희승 공동대표가 잡플래닛 사이트를 설명하며 활짝 웃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잡플래닛에서 보니 너희 회사는 월급이 많은 대신 야근이 힘들다며…."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잡플래닛으로 회사 분위기를 미리 살펴보지 그래."

최근 직장인·구직자 모임에서 기업평가 사이트 '잡플래닛'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를 오픈한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월 페이지뷰 1400만, 월 이용자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하루 1000건 이상의 기업정보가 올라오며 현재 리뷰가 등록된 기업수가 9000곳에 달한다. 잡플래닛을 통해 회사 속사정을 살피고 구직기업을 추천할 정도다. 잡플래닛이 짧은 시간에 이처럼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윤신근 잡플래닛 공동대표는 "익명성을 보장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기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기업의 장점은 물론 단점, 경영진 평가, 복지, 문화까지 기존 취업 사이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가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잡플래닛은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e메일 주소와 생년, 성별만 기입하면 누구나 리뷰를 올릴 수 있다. 현직장 또는 전직장을 선택해 해당 기업의 업무분야, 근무지역을 입력한 후 장점, 단점, 경영진에 바라는 점 등을 올리면 된다. 승진기회·가능성, 복지·급여,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문화, 경영진 등에 대해서는 별5개 평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리뷰를 한 개 이상 올리면 21만 건에 달하는 다른 회사 리뷰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이중 검증으로 신뢰도 확보

혹시 허위 기재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이에 대해 황희승 공동대표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장점과 단점의 균형이 깨졌거나 욕설·은어·특정 인물 비방, 회사 기밀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리뷰는 차단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네티즌 검증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팀에서 하루 1000여 건에 달하는 리뷰를 꼼꼼히 살펴 25% 가량을 1차로 걸러낸다는 설명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일주일간 들어온 리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중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신고가 들어온 리뷰는 작성자에게 수정을 권고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5% 정도의 리뷰는 아깝지만 등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회사를 다니며 느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 소름끼칠 정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사이트 '평가해주세요'에 9점(10점 만점) 이하로 점수를 매긴 네티즌이 아직까지 한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업 추천 등 새 서비스 준비중

이같은 놀라운(?)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30세 동갑내기인 윤·황 공동 대표는 10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창업파트너다. 인큐베이팅(창업보육) 회사인 로켓인터넷코리아, 쇼셜커머스 업체인 크루폰코리아 등을 함께 운영했다. 여러 번의 창업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 잡플랫닛이라는 '선물'로 재탄생했다는 이야기다. 황 대표는 "회사를 설립해 직원들을 뽑다보니 회사와 궁합이 맞지 않아 떠나보낸 인재들이 너무 많았다"며 "건설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업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구인·구직 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같은 미스매칭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공동대표는 잡플래닛을 통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웃지 못할 취업시장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도 조만간 추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야근이 힘들다고 리뷰를 올린 직장인에게는 자동으로 근무 여건이 훌륭한 기업을 추천하고 가고 싶은 회사 5개를 선택한 취업준비생에게도 기업리뷰를 무료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부적절한 리뷰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윤·황 공동대표는 "모든 직장인들이 잡플래닛을 통해 만족스러운 직장으로 재배치되도록 돕는 게 궁극적 목표"라며 "기업들도 직원들이 올린 리뷰를 통해 더 나은 직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활짝 웃어보였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깨끗해야 공부도 잘되죠" YBM에듀케이션 임직원들이 'YBM 클린 데이'로 지정된 지난 21일 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YBM에듀케이션은 이번 캠페인을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YBM에듀케이션 제공

멘토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볼까

'멘토링코리아 2014' 참가자 모집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최서형 위담한방병원 병원장 등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청년의 뜰'은 다음달 30일 숭실대학교에서 '멘토링코리아 2014' 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멘토링코리아 2014'는 50명의 멘토가 150명의 멘티를 만나는 멘토링 축제다.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 김진석 후스타일(요거베리) 대표이사 등 8개 그룹, 23개 영역에서 50명이 재능기부 멘토로 참여한다.

이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층 멘토링 액션러닝을 통해 멘티의 꿈과 비전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멘티는 7월말까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mentoring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직장인 1인당 평균 빚 4472만원

10명 중 6명은 '워킹푸어'

직장인 절반은 평균 447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를 '워킹푸어'라고 답한 직장인도 10명중 6명에 달했다.

2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현재 빚 여부'를 조사한 결과, 48.4%가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진 빚은 1인당 평균 44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5.6%는 빚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빚을 진 원인으로는 42.9%(복수응답)가 '보증금 등의 주택관련비'라고 답했다. '학자금'(32.6%), '생활비'(29.4%), '쇼핑 및 유흥비'(5.9%), '자녀 양육비'(5.4%), '결혼자금'(4.6%), '개인 용돈'(4.6%) 등이 뒤를 이었다.

미혼 직장인들은 '학자금'(48.2%, 복수응답)을, 기혼은 '보증금 등의 주택관련비'(63.5%)를 각각 1순위로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빚은 주로 '제1금융권 대출'(57.8%, 복수응답)로 졌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정부 대출'(22%), '제2금융권 대출'(17.4%), '가족·친척에게 갚을 빚'(11.1%) 등도 있었다.

상환까지 예상 소요기간은 평균 5년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직장인 62.9%는 스스로 일을 해도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인 '워킹푸어'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국명기자

秋冬 준비하는 유통업계, '대세 모시기'

업체마다 신규 모델 발탁·교체 이어져… 시너지 효과 기대

유통업계는 바야흐로 가을시즌 준비에 한창이다. 계절이 변하면 모델 역시 바뀌게 마련. 한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면 동종 업계의 타 브랜드 모델로는 활동할 수 없는 것이 업계의 관례다. 이 때문에 모델 교체 시점이나 어떤 브랜드에서 어느 모델을 선정했느냐는 '일급비밀'이다.

모델 선정은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가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는 '대세' 연예인인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앞으로 브랜드 전개 전략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관계자는 귀띔했다. 물론 계약 조건과 개런티 등 비용 문제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명품 브랜드 MCM은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전속모델로 전격 발탁했다.

엑소는 1년간 이 브랜드 모델로 화보 촬영과 콜라보레이션 라인 출시, 브랜드 행사 등에 참석한다.

엑소 멤버들의 톡톡 튀는 개성과 발랄함이 타 브랜드와 차별화한 MCM만의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통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535 세대를 위한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은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인 손나은(사진 왼쪽)을 추가 전속 모델로 최근 발탁했다.

회사는 경쟁사와 차별화한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임시완과 정은지에 이어 손나은을 전속 모델로 추가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용학 엠리밋 사업부장 상무는 "밝고 털털한 성격에 생기 넘치는 매력을 갖춘 정은지와 청순하고 소녀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손나은이 화보와 광고를 통해 상반된 매력을 뽐내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롯데주류는 기존에 전개하던 복수 모델 콘셉트에서 벗어나 배우 신민아를 '처음처럼' 신규 모델로 단독 캐스팅했다.

회사는 신민아(오른쪽)의 이미지가 부드러운 제품속성과 맞아떨어진다고 밝혔다. 기존 포미닛 현아·카라 구하라·씨스타 효린 등의 3인 체제나 조인성·고준희 투톱보다 제품과 모델 간의 연상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배우 공효진은 SK네트웍스 여성복 브랜드 세컨플로어(2econd floor)의 광고 모델로 발탁돼 중국 진출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 브랜드는 계약 직전 발생한 공효진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광고홍보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의리와 신뢰를 위해 계약 일정을 전면 연기하기도 했다.

공효진은 조인성과 함께 23일 방송 예정인 SBS 새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출연을 앞두고 있다.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라 브랜드의 중국진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도 소녀시대의 윤아를 글로벌 모델로 전격 발탁,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다.

윤아는 6년째 이 브랜드의 국내 모델로만 활동하고 있었다.

이니스프리 측은 "자사가 진출한 아시아 국가에서 윤아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최근 홍콩의 모델 Kelly fu, 대만의 뷰티 전문가 Brian과 함께 글로벌 홍보 영상에 출연하며 해외 고객에게 첫 인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균형잡힌 건강을 드세요

'영양 밸런스' 맞춘 제품 출시

우리나라 국민은 나트륨을 기준치의 3배나 섭취하고 3명 중 1명은 성인비만이다. 보건복지부가 '2012~2016년 국민영양관리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2010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양불균형과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식음료 업계의 화두는 안전과 건강이다. 단순히 식재료의 원산지뿐 아니라 영양 밸런스를 갖춘 식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백설은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영양밸런스를 맞춘 '영양균형 핫케익믹스'(사진 왼쪽)와 '건강을 생각한 요리유'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핫케익에 영양 균형을 맞춰 균형잡힌 식사 또는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칼슘·비타민 등 11가지 영양소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3대 영양소를 에너지 적정비율로 만들었다. 추가로 계란과 우유를 조절해 넣어 만들면 성장기 자녀들의 영양 간식으로 좋다.

백설 '건강을 생각한 요리유' 역시 한국영양학회와 공동개발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균형을 맞춘 제품이다.

정식품은 지난 2월 식물성 두유에 우유를 균형 있게 혼합해 영양밸런스를 맞춘 신개념 균형밀크 베지밀 '우유두유'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콩의 속살을 그대로 갈아 만든 두유액과 1등급 A원유를 3:1의 최적의 비율로 혼합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일일 권장량을 충족시켰다. 또한 뼈 건강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비타민 D3를 강화해 신선한 맛과 함께 영양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은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돕기 위해 스무디 전문가 '스무디오'가 직접 고객 컨디션에 맞는 스무디와 인핸서를 추천해주는 '스무디오 1:1 컨설팅 타임'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건강 목표에 따라 적절한 스무디와 인핸서를 추천해 균형잡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리빙라이프의 '내 몸에 딱 리얼밸런스40'(오른쪽)는 5가지 국산곡물인 현미·현미찹쌀·통밀플레이크·보리플레이크·압맥의 국산곡물을 그래놀라 베이스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제품이다. 한끼 식사대용으로 통곡물로 영양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 준다.

/정영일기자 prms@

할리스커피 매장 숙취해소 젤리 증정

한독, '레디큐 츄' 11만 개 샘플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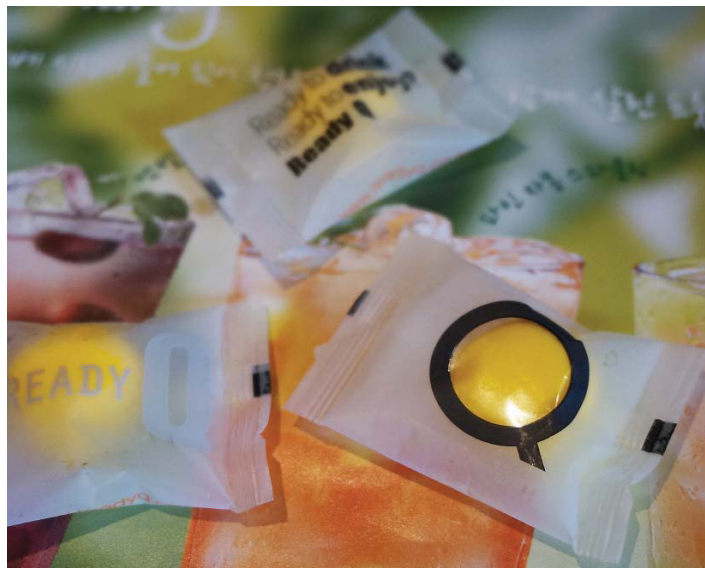
할리스커피에서 음료를 마시면 숙취해소 젤리를 공짜로 맛볼 수 있다.

한독(회장 김영진)은 커피 전문점 할리스커피에서 젤리형 숙취해소제 '레디큐 츄' 11만 개를 제공하는 대규모 샘플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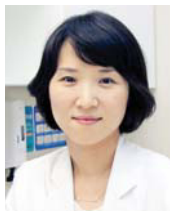
이번 이벤트는 전국 360여 개 할리스커피 매장에서 제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회사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커피 또는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민복 한독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본부 전무는 "이번 이벤트는 많은 여성들이 음주 후 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신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며 "커피와 함께 레디큐 츄를 먹으면서 숙취해소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출시된 제품은 카레의 원료로 알려진 울금(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에서 '행오버 젤리'란 별명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또 젤리 3개가 개별 포장돼 있어 음주량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한독 제공

캡슐 내시경 검사 관심 집중

건강보험 적용… 소장과 같이 복잡한 구조 관찰 쉬워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 중 검사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되는 캡슐 내시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개의 긴 관 형태로 돼 있는 일반적인 내시경은 몸속의 장기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앞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암이 의심되는 용종을 기구를 통해 떼어낼 수 있지만 관의 길이와 움직임이 한정돼 있어 소장과 같이 길고 복잡한 구조의 장기 검사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달리 캡슐 내시경은 알약처럼 작은 크기의 진단 장치로 환자가 캡슐 내시경을 삼키면 장치가 몸속 소화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기록 장치로 전송돼 저장되고 의사는 저장된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게 된다.

현재 캡슐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이 들어가기 힘든 소장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원인 모를 복통·설사·출혈·빈혈 등의 원인을 찾는데 쓰이고 있으며 크론병이나 소장 종양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다.

정혜경(사진)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교수는 "비싼 진료비 부담으로 검사를 미뤘던 원인 모를 빈혈이나 위장관 출혈, 소장질환으로 인한 만성 설사나 복통 환자들에게 이번 건강보험 적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트레킹 알고 즐기세요"

장비 사용법·호흡법 등 기초 이론·실기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 주말에 교육

건강과 삶의 여유를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트레킹'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트레킹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올바른' 트레킹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트레킹을 가벼운 운동이라 여기고 함부로 시도했다가는 관절, 근육에 무리가 가는 등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

최근 트레킹을 즐기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가 인기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가 주관하는 트레킹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신명나는 트레킹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1일 트레킹교육'을 실시하며 트레킹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등산 관련 자격증과 응급처치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문 강사팀이 올바른 장비 사용법·호흡법·보행법·응급처치와 같은 트레킹 기초에 관한 이론과 실기과정을 교육한다.

트레킹학교 관계자는 "최근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사·학교·청소년 단체(시설)에서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과 청소년,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단체 교육 접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및 신청: www.sportal-edu.or.kr 전화: 02)2272-2744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2014 한국관광을 빛낸 별은?

창녕군 우포늪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관광공사, 개인·단체 수상자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종)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2014 한국관광의 별'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제정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생태관광자원 부문) ▲강원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문화관광자원 부문) ▲경남 통영시 케이블카(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부문) ▲New 내일로 기차로(단행본 부문) ▲전남 여수시 한옥호텔 오동재(체험형 숙박 부문)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쇼핑 부문) ▲강원 평창군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체험형 음식 부문) ▲전남 곡성 기차마을(창조관광 부문) ▲한국농어촌공사·한화케미칼·주성엔지니어링(휴가문화 우수기관 부문) ▲전지현(공로자) 등이다.

관광공사는 올해 수상자들이 기존 관광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다 높은 가치의 관광자원을 개발한 모범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가문화 우수기관 부문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근로자 휴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은 22일 개최됐으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명의 상패를 비롯해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황재용기자

휴가철에도 피부 관리는 '쭈욱~'

해변에선 자외선 차단 필수
장시간 비행때는 수분 보충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다. 들뜬 마음에 훌쩍 떠났다간 그동안 공들여 가꿔온 피부를 한 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 휴가를 마친 뒤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휴가지에서도 피부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뷰티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특히 해변, 산 등 휴가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뷰티 아이템을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다.

◆해변: 자외선 차단·피부 진정

바닷물·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해변으로 떠날 때는 자외선 차단 제품은 물론 피부 진정 아이템을 챙겨야 한다.

먼저 그을린 피부에 염분이 닿으면 따끔거릴 수 있다. 이때는 보습·쿨링 성분의 제품으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 CNP차앤박 화장품의 'CNP 아쿠아 수딩 젤 크림'은 피부에 닿는 순간 물처럼 흡수되며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한다.

물놀이를 할 때는 워터프루프 기능의 선블록을 이용하는 게 좋다. 뉴트로지나 '울트라 시어 웻 스킨 선블럭 SPF 50/PA +++'은 땀·물·태양을 3중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다. 물에 젖은 피부에 뿌려도 하얗게 뜨거나 겉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등산·캠핑: 쿨링 기능 선블록

등산·캠핑을 계획했다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쿨링 기능까지 겸비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가장 강렬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 헤라의 '선 메이트 쿨링 무스'는 바르는 즉시 촉촉한 물방울로 변하는 무스 제형으로 SPF 50+의 강력한 선블록 기능과 쿨링 효과를 갖췄다.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캠핑에서는 휴대용 클렌징 티슈 한 장이면 땀과 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비타민·보습 성분을 함유한 오늘(OLN)의 '비타빈 올 프루프 클렌징 티슈'는 짙은 메이크업은 말끔히 지우고 촉촉함만 남겨준다.

◆장거리 비행기 여행: 수분 보충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할 때는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비행기 안의 습도는 15% 내외로 에어컨을 틀어놓은 사무실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미스트와 멀티 오일을 이용해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아벤느 '온천수 스프레이 오떼르말'는 민감성 피부에 진정·보습을 전하는 스프레이(50㎖)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멜비타 '아르간 롤온 뷰티 오일'은 휴대 간편한 롤온 타입이라 언제든지 얼굴·눈가 등 건조한 부위에 문질러 주면 된다. /박지원기자

거탑마을,
어딘가 수상하다!

tvN 농디컬 드라마

황금거탑

오늘 밤 11시 tvN 방송

최종훈 | 김재우 | 김호창 | 정진욱 | 백봉기 | 이용주 | 황제성 | 송영재 | 김선화 | 이덕재 | 송창의 | 이명한 | 박종훈 | 정형진 | 민진기 박수원 | 손진락 정현남 박현주 이진용 민지윤 이은경 김영은
정인환 조승희 김민석 남지연 | 송수경 | 민유화 | 선종수 | 구기원 김승민 이주혜 한소라 김동희 | 조영아 진윤주 안은지 안정윤 박선경 최윤정 한다운 | 함준일 | 김연희 | 박도윤 | 김재인 | 윤정은 이슬 한창현 | 김재은 강길영 | 김진주 조윤해
이영균 | 김지영 이지현 | 양희선 채수경 | 이기혁 김희연 | 이재원 | 이승우 이민재 곽기범 | 〈온에어〉 윤창한 유재상 | 〈바라본〉 조현희 〈SLR RENT〉 | 〈달리는 크레인〉 한상수 | 〈한국의장〉 정종범 김태우 | 〈제이라이팅〉 김종덕 김용일 김민성 하승수
김종운 | 〈퍼니사운드〉 유지범 김원집 | 김수진 | 〈춘사운드〉 최현우 박혜인 | 〈소금픽처스〉 이용갑 김필재 이병재 | 〈아미〉 김혜중 김지혜 박은미 | 〈스타일원〉 허은숙 주민구 이은선 | 홍승완 | 〈에스버스〉 김선진 〈프라임렌트카〉 | 강지형 | 김문옥
최희진 | 김현민 | 홍지은 | 최연주 | 이동환 신진규 | 김명훈 | 손재민

새로 나온 책

취업·수험서

공무원이 말하는 공무원

김미진 외/부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현직 공무원 20명의 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장래 직업으로 공무원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공직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생,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걱정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공무원은 철밥통일까.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희노애락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가정·육아

늦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할 부모의 권위

요세프 크라우스/푸른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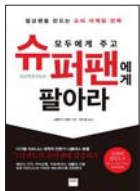
이 책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녀교육서다. 저자는 무엇보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권위'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20대 중반~30대 중반의 젊은 부모들을 위한 '유머 있는 교육' 노하우를 공개한다.

경제·경영

9900원의 심리학 리 칼드웰/갈매나무

인지경제학·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저명한 저자가 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학'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다양한 요소로 인해 미묘하게 반응하고 순식간에 돌아서는 소비 심리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파악하면 이를 판매에 접목시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모두에게 주고 슈퍼팬에게 팔아라

니콜라스 로벨/와이즈베리

저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짜로 사람을 모으고 가격을 다양하게 설정해 일부의 '슈퍼팬'들이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드는 시대라고 주장한다. 책은 공짜의 힘을 이해하고 고객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슈퍼팬을 끌어들이는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여행

드라마 서울을 헌팅하다

남도현/이숲

최근 4~5년 사이 방영된 드라마·영화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거나, 가슴을 울컥하게 했던 장면과 관계있는 서울의 70곳을 되짚어 봤다. 아울러 촬영지의 역사적 배경이나 찾아가는 방법·주변의 볼거리·먹거리 등도 소개해 서울을 감성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알찬 소개서다.

명문가에서의 하룻밤 여태동/김영사

따뜻한 온돌마루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를 듣고, 편한 옷차림으로 뒷짐지고 돌담길을 걷다 보면 도시 생활로 얻은 스트레스가 단번에 날아갈 것만 같다. 저자는 고즈넉한 고택에서 완벽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귀띔한다. 교통 정보와 연락처 등도 함께 소개해 알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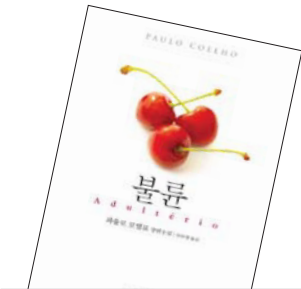
"진짜 사랑 얘기를 하고 싶었다"

파울로 코엘료가 전하는 '자아발견' 사랑 이야기

스위스 제네베의 유명 신문사에서 일하며 십 년째 순탄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린다. 좋은 집,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 나무랄 데 없는 두아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녀의 일상에 위기가 찾아든다. 재선을 노리는 유명 정치인 야코프를 우연히 취재하게 되면서 이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다. 야코프는 린다가 고등학교 시절 만난 옛애인이다.

모든 불륜의 시작은 일상의 권태에서 시작하듯 린다도 그랬다. 저자는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에 대한 불안, 불현듯 찾아온 우울과 공허함에 휩싸인 그녀를 위태롭게 묘사한다.

불륜 파울로 코엘료/문학동네

야코프는 그녀의 슬픔을 발견한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 행복해? 당신처럼 예쁜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슬픔이 보여.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보는 느낌이었어"라는 말과 함께 그는 모험을 감행한다. 린다 역시 죄의식과 흥분감 사이를 오가며 위험을 감내한다.

이 불륜 이야기도 점차 막장으로 치닫게 된다. 야코프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린다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광기로 변해간다. 자신이 그리던 관계가 아님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가던 중 두 부부가 한데 모인 자리에서 모든 관계는 끝이 난다. 린다는 허망했고 전보다 더 위태로워진다.

이야기의 전개는 다른 불륜 스토리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와 내면을 묘사한 코엘료 작가의 깊이는 분명 이 소설이 다른 것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위기의 순간,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남편은 린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야 해. 사랑은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만화경 같은 거니까. 똑같은 건 없고 항상 변하지. 최악은 뭔지 알아? 제 결혼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중요한 건 그것뿐이야."

이 책은 소유와 속박을 벗어난 자유에 관한 이야기이며 진정한 사랑을 통해 자아를 발견한다는 소설이다. 치정을 다룬 단순 불륜 소설과는 격이 다른 코엘료 작가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언젠간 행복해지겠죠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때 학교 앞 가게로 프레즐을 사러 가다 이 문구와 마주쳤다. 그 때 했던 생각은 가물거리지만 지금 그렇듯이 아마 그 날도 멀기만 한 행복을 상상할 겨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막연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 힘이 아직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청춘의 낙서들'(도인호/앨리스) 중 -

/정혜인기자 hijung0404@

인터넷교보문고 '휴가철 이벤트'

인터넷교보문고(대표 허정도)는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행사도서 1권을 포함해 2만원 이상 구매하는 독자들에게 여권 케이스를 증정한다. 이 행사는 준비된 4만5000개의 여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여름 추천도서를 구매하는 고객은 사은품으로 LG울트라그램, 아이패드 미니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유아동·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책을 모은 '가족 북캉스' 이벤트는 행사도서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카우보이 모자나 물안경 등 여름 아이템을 증정한다. 또 회사는 추첨을 통해 지구본과 책장, '구름빵' 공연 초대권을 준다.

다음달 6일까지 아시아나항공권을 구매하면 도서교환 5000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 도서교환권은 회사가 선정한 바캉스 추천도서 72종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별을 사랑한 천문학자의 이야기

화제의 책

이명현의 별 헤는 밤

이명현/동아시아

별을 사랑한 천문학자이자 우주인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별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다. 당시 그는 별과 얘기를 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잊고는 했다.

그렇게 외로움을 함께 나누던 별은 그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 주제로 조금씩 변해왔다. 그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어준 아내, 세상 가장 소중한 아들, 또 지금 그의 곁을 지키는 술친구들과 함께 별에 대한 추억을 나눴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가 경험한 별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한다.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밤을 책임지는 별의 사랑, 일생 동안 별과 동고동락했던 그의 감수성 짙은 담소가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별 볼 일 있는 예술가들도 만날 수 있다. 밤하늘 별을 따라 춤추는 바람을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온 사람들의 마음이 더해졌다.

2014년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가수 윤영배는 캘리그래피를 보냈고, 가수 이소라는 8집에 실린 '난 별'의 앨범사진으로 마음을 전했다. 또 일본 일러스트 작가인 구사카 아키라는 책 표지와 별자리 지도 제작에 참여했으며 정현종·안도현·류시화·나희덕 등 26명의 시인이 노래한 글도 별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편지가 지금 시작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연기력 논란 댓글 보면요. 마치…"

'닥터 이방인' 1인 2역 소화한 진세연

진세연(20)은 환한 미소가 매력적인 배우다. 차분한 여성적 매력이 강점인 그는 "닥터이방인"에서 생애 첫 1인 2역을 연기했다. 티 없이 맑은 북한 소녀 송재희와 과업을 달성하고 박훈(이종석)을 지켜야 하는 순애보 한승희를 소화했다. 연기력 논란이 있었지만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 "이종석이 애기라고 놀려요"

"진짜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저도 모니터링 하면서 비슷하게 느꼈고요. 한승희는 차갑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죠. 실제 성격과도 반대고요. 어려웠어요. 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캐릭터랑 달라 시청자도 낯설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댓글은 최대한 읽지 않으려고 해요. 단점이 뭔지 저도 알거든요. 마치 얼굴이 부은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콕 집어서 말할 때 기분이에요. 촬영 중에는 팬카페나 트위터의 응원 글을 더 보려고 하죠."

극 초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종석과 북한 요원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종석이 저를 안고 달려야 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당시 오빠가 북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살을 많이 빼고 있어서 바나나, 고구마만 먹고 있었죠.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기절해 있는 설정이 많았어요. 성격이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누워있다가 정말 잠들었고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죠. 이종석과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엔 무서웠지만 오빠가 '살아 돌아오자'고 했죠.(웃음)"

진세연은 18세에 이종석과 처음 만났다. "자신도 평소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면서 저보고 자꾸 '애기가 벌써 이렇게 커 가지고'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키스나 애정신을 찍을 때 어색했죠. 자연스럽게 이끌어 줘서 잘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첫사랑 커플이지만 일부 시청자는 강소라와 이종석의 사랑을 응원했다. "촬영하면서 오수현(강소라)과 박훈의 알콩달콩한 케미를 응원했고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이죠.(웃음)"

작품은 극의 개연성이 떨어져 설득력을 잃었고 '1·2부가 가장 좋았다'는 혹평을 받으며 동시간대 1위를 체감할 수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그는 "일주일에 120분 분량을 찍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며 "'다른 회차보다 유독 1·2부가 좋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애정을 보였다.

◆ "또 겹치기 출연하면 끝이죠"

진세연은 2009년 광고로 데뷔했다. "어렸을 때 배우를 꿈 꿔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교문 앞에 캐스팅 디렉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 광고 제의가 들어와서 호기심에 시작했죠. 현장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처음부터 드라마를 경험했다면 재미를 못 느꼈을 지도 몰라요."

그룹 제국의 아이들이 소속된 스타제국 출신이기도 하다. "3개월 정도 짧게 있었어요. 연습을 했고 '아이돌이 되겠구나'했었죠. 잘 부르고 추지는 못하지만 학교 축제 때 무대 욕심은 있었어요. 조용하다가 무대에 나가면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놀랐죠."

로맨틱코미디 꼭 하고 싶다 첫사랑과의 결혼 꿈꿔

2010년 SBS '괜찮아, 아빠 딸'부터 '내 딸 꽃님이'(2011), '각시탈' '다섯 손가락'(2012), 올해 '감격시대' '닥터이방인'까지 쉬지 않고 활동했고 의도하지 않게 신비주의 여배우가 됐다. "그 동안 맡았던 캐릭터가 주로 감정을 삼키는 거여서 더 신비주의로 느껴졌나 봐요. 저도 몰랐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의아해요. 다음엔 꼭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캐릭터로요."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연애를 해 본적이 없다. "어렸을 때는 캠퍼스 커플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했고 시간이 없으니 '연애하면 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첫사랑과 결혼하고 싶어요."

겹치기 출연 논란에 여러 번 휩싸였지만 '닥터 이방인' 종영 후엔 차기 작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여기서 또 겹치면 연기 인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웃음) 올해는 쉬면서 학교(중앙대 연극영화학과) 다니고 부족한 걸 채울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일본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알아보면?) 에이 설마요~*^^*(넣어달라고 한 이모티콘)"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걸스데이

씨스타

걸스데이-씨스타-현아 3파전

올 여름 여자 아이돌 가수의 불꽃튀는 전쟁이 볼만하다.

걸스데이와 씨스타, 현아의 3파전이다. 상큼 발랄한 매력과 펑키 섹시, 독보적인 섹시아이콘이 이들의 팀컬러다.

◆ 걸스데이 차트·유튜브 인기

올 상반기 '섬싱'으로 가요계 섹시 트렌드를 이끈 걸스데이가 하반기 여름송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여름 스페셜 앨범 '섬머 파티'를 발표한 걸스데이는 타이틀곡 '달링'으로 음원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다.

온라인 음원 업체 소리바다에서 '달링'은 7월 3주차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1주일 만에 유튜브 300만 조회 수를 돌파하며 대세돌로 자리잡았다. 걸스데이는 '달링'으로 상큼발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한번 들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후렴구에 엉덩이를 흔드는 귀여운 안무를 조합했다.

데뷔 4년차 걸스데이의 열풍은 최근 진행한 콘서트로 이어졌다. 4년만에 기획한 첫 단독 콘서트가 1분만에 매진됐다. 티켓 예매에 실패한 팬들을 위해 SBS MTV 채널 '더 쇼'에서 스페셜로 재조명할 정도다. '반짝반짝' '기대해' '여자대통령' '섬싱' 등 다양한 히트곡을 선보인 걸스데이가 앞으로 어떤 흥행을 보일지 주목된다.

◆ 씨스타 건강한 섹시함

'나 혼자' '러빙유' '기브 잇 투 미' 등 지난 2년간 음원강자로 등극한 씨스타는 올 여름 건강한 섹시함을 강조하고 있다. 씨스타는 트러블메이커와 비스트 앨범 등에 참여한 작곡가 라도·최규성의 신곡 '터치 마이 바디'로 컴백했다. 이 곡은 기존에 씨스타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섹시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현아

신곡 '달링' '터치 마이 바디' 가요계 강타
섹시 아이콘 현아 치명적 매력 컴백 예고

기존 관능적 퍼포먼스와 다른 씨스타의 전매특허인 섹시 군무를 포인트로 뒀다. 씨스타가 가지고 있는 섹시한 매력을 베이스에 깔고, 펑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는 전략이다.

덕분에 신곡 '터치 마이 바디'는 21일 공개직후 멜론, 엠넷, 올레뮤직, 벅스, 몽키3, 지니 등 총 9개 실시간 차트에서 정상에 등극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인상적이다.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살린 단어들이 등장해 더욱 흥을 돋운다.

씨스타는 음원 공개 2시간 만에 10대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 현아 섹시아이콘 주목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는 오는 28일 미니 3집앨범 '어 토크'를 발매하고 독보적인 섹시 아이콘의 진가를 나타낼 예정이다. 25일 KBS2 '뮤직뱅크'에서 타이틀곡 '빨개요'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솔로 무대에서 섹시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현아가 이번 신곡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솔로앨범은 2012년 '아이스크림'에 이어 1년 9개월만의 컴백이라 기대가 더욱 크다. 신곡 '빨개요'는 현아를 보면 연상되는 섹시하고 강렬한 이미지 컬러인 '레드' 콘셉트에서 착안한 발랄하고 재치 있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곡이다.

현아의 섹시미를 한층 돋보이게 할 톡톡 튀는 느낌으로, 신진 작곡가 서재우·빅싼초 콤비가 빚어낸 위트 넘치는 멜로디에 현아의 독특한 매력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아는 컴백을 알리며 공개한 티저에서 욕조 속에 잠긴 채로 손과 다리만을 내보이며 신비로움을 더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드렁큰타이거-윤미래 무대 귀환

4년 만의 콘서트 '더크레이지-코리아' 개최

드렁큰타이거(타이거JK)와 윤미래가 한국 대표 힙합 뮤지션들과 한 무대에 오른다.

드렁큰타이거와 윤미래는 다음달 29~30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더 크레이지-코리아' 공연에 참여한다.

'더 크레이지-코리아'는 드렁큰타이거, 비지, 소울다이브, 클로버를 비롯해 스페셜 게스트 윤미래가 참가하는 힙합 콘서트다. '미치도록 놀아보자'는 슬로건을 내걸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힙합콘서트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더크레이지' 공연은 매년 슬로건을 달리하여 사회에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올해는 다사다난한 대한민국을 보며 응원하기위해 '더크레이지-코리아'라는 공연명으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타이거JK와 윤미래가 4년 만에 한 무대에 설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힙합계의 전설적인 바람을 불러 일으킬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제작하는 통엔터테인먼트는 "타이거JK의 공백이 컸던 만큼 수준 높은 연출력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수 많은 힙합 공연과 차별화를 꾀했다"이라고 말하며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크릿 세 번째 일본 콘서트 '유후'

걸그룹 시크릿이 국내 컴백을 앞두고 일본 팬들을 먼저 사로잡았다.

시크릿은 19일과 21일 도쿄의 마이하마 앰퍼시어터와 오사카의 마쓰시타 IMP홀에서 각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2014 시크릿 섬머 라이브~유후~'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시크릿 퍼스트 재팬 투어 시크릿 타임 2012)'와 '2013 러브 인 시크릿'에 이은 세 번째 단독 콘서트다.

이번 공연에서 시크릿은 히트곡 '샤이보이'와 '마돈나'는 물론 일본 앨범 수록곡인 '트윙클 트윙클' '드라이브 투 유' '시크릿 드림' 등을 열창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멤버별 개인 무대로 전효성은 첫 솔로 데뷔곡 '굿나잇 키스'와 수록곡 '여자를 몰라'를 선보였으며 한선화는 도발적인 가사의 '난 남자가 있는데'로 색다른 무대를 꾸몄다. 송지은과 정하나가 준비한 듀엣 무대 '런 투유' 역시 서로 다른 매력적인 음색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공연은 23일 발매를 앞둔 다섯 번째 일본 싱글 '유후'의 일본어 버전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여서 현지 팬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유후'는 귀여운 가사와 깜찍한 안무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크릿의 대표곡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시크릿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시크릿은 그동안 선보였던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가 아닌 한층 고혹적이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다음달 국내 팬을 찾아올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유지태 '힐러' 안방 복귀

송지나·이정섭 제작진 참여

배우 유지태(사진)가 KBS2 새 수목드라마 '힐러(가제)'에 출연한다. SBS 드라마 '스타의 연인' 이후 6년 만의 안방 복귀다.

유지태는 '힐러'에서 김문호 역을 맡았다. 메이저 방송사 스타 기자다. 어느 날 과거 부모 세대에 얽힌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유일한 인물로 진실과 의혹 사이에서 갈등한다.

작품은 송지나 작가와 이정섭 PD, 두 스타 연출진이 함께 한다. 송지나 작가는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카이스트' '대망' '태왕사신기'를 집필했고, 이정섭 PD는 '쾌도 홍길동' '제빵왕 김탁구' '영광의 재인'을 연출했다.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아이언맨'의 후속 작으로 11월 방송된다.

유지태는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테너 : 리리코스핀토'에서 목소리를 잃은 천재 테너 배재철 역을 소화했다. 영화는 올 하반기 한국·중국·일본에서 개봉된다. /전효진기자

박신혜 단독 일본 팬미팅 성료

친오빠 박신원과 콜라보…중국·대만 등 투어 계속

배우 박신혜가 아시아의 여왕임을 입증했다.

박신혜는 지난 19~20일 일본 오사카 텐진홀과 도쿄 야마노홀에서 일본 팬미팅 투어 '2014 스토리 오브 에인절 인 재팬'을 개최했다. 지난해 국내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에 나선 후 두 번째 해외 팬 미팅이다.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단독 팬 미팅을 열었다.

이번 일본 팬 미팅은 1부 공연, 2부 토크로 진행됐다.

박신혜는 1부에서 총 6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출연 작품 수록곡과 음원 공개 후 한 번도 직접 부른 적 없는 '넌 이별 난 아직' '팔베개' '마이 디어'를 MR 라이브로 소화했다. 또 '새까맣게' '마이 디어' '팔베개' 무대를 작곡가인 친 오빠 박신원의 기타 연주와 함께 꾸며 남매의 남다른 끼를 발산하기도 했다.

2부 토크 타임에선 SBS 드라마 '상속자들' 뒷이야기와 망고주스 만들기 등을 했다. 특히 박신혜는 '상속자들'에서 입었던 교복을 입고 등장해 큰 환호를 받았다.

박신혜는 '사랑하게 되는 날'을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한 관객은 앙코르를 외치며 아쉬워했고 그 모습에 박신혜도 무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했다.

일본 공연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 한국 여배우로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며 "박신혜의 저력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박신혜는 22일 일본 매체와의 '상속자들' 인터뷰를 끝으로 3박 4일 일본 일정을 마쳤다. 이후 중국 5개 도시와 대만·태국·싱가포르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이하늬 농촌 이장 된다

SBS '모던 파머' 출연

배우 이하늬(사진)가 SBS 새 주말극 '모던 파머'(가제)에 출연한다. 도시적인 매력을 지닌 그는 작품에서 최연소 농촌 이장 강윤희 역을 맡았다.

강윤희는 이민기(이홍기)의 첫 사랑이다. 모닝 커피, 클럽 방문, 최신 유행 패션을 즐긴다. 마을 분위기를 주도하고 악바리 근성이 있는 살림꾼이기도 하다.

이하늬는 지난 5월 종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사남일녀'에서 꿀언니라는 애칭을 얻으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정 많은 강윤희 역할과 비슷한 면이 많아 극의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무더위에 시작되는 촬영이라 걱정 되지만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모던 파머'는 인생의 마지막 탈출구로 귀농을 선택한 네 청춘들의 꿈과 사랑, 우정을 그리는 휴먼 코미디 드라마다. SBS 드라마 '결혼의 여신'을 연출한 오진석 PD와 tvN '롤러코스터' '푸른 거탑'을 집필한 김기호 작가가 함께 했다. '기분 좋은 날'의 후속 작으로 오는 10월 중순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김범 中 드라마 '미시대' 화제

현지 온라인 열기 고조…광고 러브콜까지

배우 김범이 출연하는 중국 드라마 '미시대'가 방영과 동시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미시대'는 중국 온라인 기업 텐센트의 포털 사이트 큐큐닷컴에서 온라인 방송 최초로 여름 특집 드라마의 개념을 도입해 만든 작품이다. 화려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젊은 SNS 세대의 사랑과 비즈니스를 담았다.

이번 작품에서 김범은 전국 프리미엄 레스토랑 사장인 오우희 역을 맡아 럭셔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선보인다. 양멱, 저우비창, 탄웨이웨이, 리씨루이, 천파룽 등 중국 유명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킹콩엔터테인먼트 측은 "'미시대'가 특별 기획 형태로 편성된 것은 중국을 넘어선 글로벌 초거대 온라인 기업이 된 텐센트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며 "드라마의 성공 가능성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드라마 '미시대'에 출연하는 배우 김범. /킹콩엔터테인먼트 제공

현재 중국의 젊은 층은 방송보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미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는 만큼 김범을 향한 중화권 광고계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400년을 기다린 절실한 사랑" 표현

뮤지컬 '드라큘라' 국내 초연…류정한·김준수 더블 캐스팅

브람 스토커의 고전 '드라큘라'가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지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닥터 지바고' 등을 제작한 오디뮤지컬컴퍼니는 지난 17일부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뮤지컬 '드라큘라'의 국내 초연을 시작했다.

'드라큘라'는 200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 스웨덴,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공연됐다. 한국 공연은 프로듀서 신춘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 연출가 데이비드 스완 등이 참여해 브로드웨이 공연과는 또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됐다.

'라스트 스탠딩 맨' '쉬' '노스페라투 레시' 등 세 곡의 신곡을 추가해 한국 초연만의 특별함을 더했다. 주인공인 드라큘라 역에는 데뷔 17년차를 자랑하는 배우 류정한과 그룹 JYJ 멤버로 뮤지컬에서도 맹활약 중인 김준수가 캐스팅됐다.

2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공개된 공연

김준수와 조정은이 뮤지컬 '드라큘라' 프레스콜에서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하이라이트는 4중 턴테이블을 이용한 회전 무대와 섬뜩함과 로맨틱함이 공존하는 무대로 눈길을 끌었다. 공포보다 로맨스에 방점을 맞춘 점도 인상적이었다.

배우들이 꼽은 작품 관전 포인트도 드라큘라의 애절한 사랑이었다.

김준수는 "400년을 기다린 드라큘라의 절실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잘 와 닿지 않았는데 '러빙 유 킵스 미 얼라이브'라는 노래를 듣고 용기가 생겼다. 이 노래 때문에 이 뮤지컬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애절하게 사랑을 구걸하는 드라큘라의 모습이 인간적이었다"고도 했다.

류정한은 '엘리자벳'에 이어 다시 함께 하게 된 후배 김준수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김준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배우"라며 "이런 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귀여운데다 열심히 하는 매력이 있다"고 칭찬했다.

신춘수 프로듀서는 "새로운 곡이 추가되고 극 구조가 바뀌는 등 브로드웨이 버전과는 다른 점이 많다. 무대나 의상에서도 작품에 녹아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만큼 '독창적인 공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드라큘라'는 오는 9월 5일까지 공연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조정은(위)과 김준수가 뮤지컬 '드라큘라' 프레스콜에서 열정적으로 연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깡패' 이병헌·'검사' 조승우 맞짱

'내부자들' 촬영 시작

충무로 대표 배우 이병헌과 조승우가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로 첫 연기 대결을 펼친다.

'내부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범죄 드라마.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파괴된 사나이'의 우민호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긴다.

영화는 지난 13일 첫 촬영을 시작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에서 진행된 첫 촬영은 깡패 안상구(이병헌)와 보수 신문인 수도일보 논설위원 이강희(백윤식)의 만남을 담았다. 메가폰을 잡은 우민호 감독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관록 있는 명배우답다고 생각했다. 다음 촬영이 기대되고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작품에서 이병헌은 권력자들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깡패 안상구 역을 맡았다. 그는 "열정이 느껴지는 현장이다. 훌륭한 배우, 스태프들이 함께 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우는 성공에 목마른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우장훈을 연기한다. 3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작품에 참여하게 된 그는 "의미 있는 작품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기파 배우 백윤식의 가세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첫 촬영을 마친 뒤 백윤식은 "배우와 스태프들 간의 호흡이 좋다.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예감이 좋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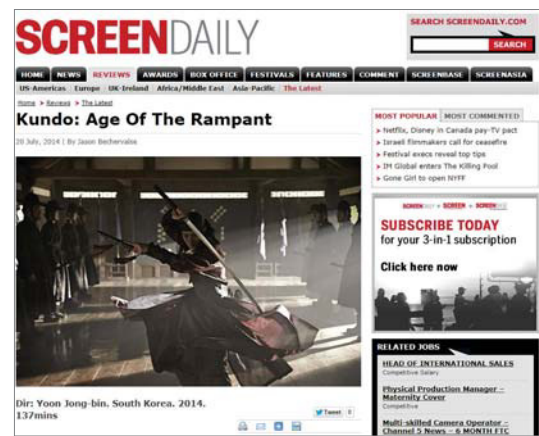
/장병호기자

"'군도', 마음 사로잡는 오락영화"

美 스크린데일리 호평…해외 개봉도 기대

하정우·강동원 주연의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가 미국 영화 전문지 스크린데일리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일 영화 칼럼리스트 제이슨 비처베이스는 스크린데일리를 통해 "'군도'는 마음을 사로잡는 즐길만한 웨스턴 오락영화다. 로빈 후드를 연상시키는 조선 도둑들의 이야기와 한국의 액션 영화가 만났다. 하정우의 돋보이는 연기와 비주얼은 국내와 외국 관객 모두를 설득하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종빈 감독은 웨스턴과 시대극이라는 두 장르의 문법을 결합하는 것을 통해 큰 도약을 시도한다.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관상' 같은 흥행 사극을

뛰어넘기 위해 영화에 더욱 다양한 풍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의 반짝이는 기술적 기량과 스파게티 웨스턴 스타일의 특성은 북미 관객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외 개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밝혔다.

'군도'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망할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는 의적들의 액션 활극을 그렸다. 23일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마더 데레사…' 세계 최초 개봉

인간적인 고뇌 그려…교황 방한 기념

마더 데레사 수녀의 인간적인 고뇌를 그린 영화 '마더 데레사의 편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기념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다.

마더 데레사는 인종과 국적, 성별과 종교,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온갖 차이를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마더'로 불리며 살아있는 성자로 존경 받았다. '마더 데레사의 편지'는 그녀가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기 전 처음 몸담았던 인도 콜카타의 로레토 수녀원 주임 신부 셀레스테 반 엑셈 신부를 포함한 사제들에게 1948년부터 죽기 전까지 50년 동안 보낸 편지가 모티브가 됐다.

가톨릭 신자인 윌리엄 리에드 감독은 마더 데레사 수녀의 편지를 바탕으로 성녀의 모습이 아닌 알바니아의 한 소녀가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거듭나기까지 겪은 고민과 힘들었던 시간을 진솔하게 그려냈다.

2014년 국제 가톨릭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세도나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해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장병호기자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남친과 키스…마음이 혼란스러워 우정손상 걱정, 상황 인정해야죠

Q Hey 캣우먼!
6~7년동안 오래 알고 지낸 남자인 친구가 있어요. 첫 몇 년 동안은 친구인 감정이었는데요 몇 년 동안 그 친구의 옷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서 제 마음도 조금 호감이 갔어요. 그 친구도 저한테 나쁘지 않은 감정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전까지의 연애의 경험으로 이별은 전부 남남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버린 저에게 이 친구랑 잘 되고 싶으면서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이 터졌어요. 술자리를 마치고 저를 집에 데려다주던 그 친구와 집 앞에서 키스를 했어요. 그래놓고선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혼란스럽네요. /이별의 시작

A Hey 이별의 시작!
제 사견으로는 남녀사이에는 친한 동료나 동창은 있을 수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 친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간의 우정이란 보통 한 쪽이 이성으로 상대를 좋아함에도 불구, 상대가 그만큼은 아닌 걸 알고 그래도 놓치기 싫어 곁에서 마냥 그러게 '친구'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당신 앞에는 우정과 연애의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지요. 연애의 가능성은 아직 확고하진 않지만 다시 본래의 우정대로 돌아가자니 뭔가 아쉽습니다. 그간의 우정이 손상될까봐 선을 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를 그만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자로선 아예 고려조차 안했다면 그 즉시 선을 그었겠지요.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는 영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해야겠지요. 젊음이 좋은 것은 무모한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키스를 해놓고서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말은 '나를 내치지 말아달라는' 순간 두려워서 부탁했던 겁니다. 평소대로 그와 지내다가도 분명히 위와 같은 상황은 또 벌어질 것이고 그 때는 둘 다 상황을 인정해야겠지요? /캣우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7		1					
2						8	5	
			8					4
		5					1	
1	8		6		2		9	7
	6				5			
3					7			
	2	4						8
					8		6	2

	6	4		8				5
		2					4	
	1					7		
			4				2	3
		8	1		7	9		
1	4				6			
		1					7	
	2					8		
6				7		3	5	

스도쿠 정답

8	7	6	1	4	5	3	2	9
2	4	9	3	7	6	8	5	1
5	3	1	8	2	9	6	7	4
4	9	5	7	8	3	2	1	6
1	8	3	6	5	2	4	9	7
7	6	2	9	1	4	5	8	3
3	1	8	2	6	7	9	4	5
6	2	4	5	9	1	7	3	8
9	5	7	4	3	8	1	6	2

9	6	4	7	8	3	2	1	5
3	7	2	5	9	1	6	4	8
8	1	5	6	4	2	7	3	9
7	9	6	4	5	8	1	2	3
2	5	8	1	3	7	9	6	4
1	4	3	9	2	6	5	8	7
5	3	1	8	6	9	4	7	2
4	2	7	3	1	5	8	9	6
6	8	9	2	7	4	3	5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35살 아들, 결혼과 사업운 어떤지… 직장생활이 적성, 내년 성혼 가능

hynin 남자 80년 2월 22일 양력 새벽5시경

Q 매일 메트로신문을 전철입구에서 출근 때 가지고 가서 보거나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면이 달라졌는데 질문을 자세히 하게 되어 기대 됩니다. 제 아들 사주인데 올해 35세 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며 식품공학과를 졸업하여 닭 가공 업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언제 할 수 있으며 회사 다니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운이 되는 지 여쭙습니다. 무엇을 해야 잘 될 수 있는지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단체로 가는 등산을 갔다가 다리를 다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음(陰)의 속성이 강하여 웃어른이나 아랫사람을 만나도 고개를 숙이고 따르는 겸손함이 있으니 평생 정규적으로 봉급이 들어오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어떤 직업을 갖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업의 불만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주입식과 개인주의 우월주의식에서 남보다 나아야 하고 내가 잘돼야 하는 의식 속에 자라 왔지만 과도기 시기에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였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서서히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 또는 네델란드 처럼 개인의 적성이나 특징을 살리고 공동체 의식 속에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모습으로 상당한 인내심이 있습니다.
'소가 밭을 갈아 곡식이 나오는 상'으로 꾸준히 축재하는데 칠전팔기(七顚八起)형으로 그 집념은 최후의 수확을 낼 수 있으며 을목(乙木)생일이 운이 순행하고 있으므로 재물 복이나 관직의 복이 있어 회사에서 임원까지 충분히 오릅니다. 상승기운을 타게 되니 현직에서 경험을 쌓고 만나는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십시오. 덕불고필유인(德不孤 必有隣: 덕이 있는 자 외롭지 않고 따르는 이웃이 있다)이라고 하였으니 현직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 이 있을 때 잘 돌봐주고 베풀어서 은행에 예금하듯이 덕을 쌓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곡각살(曲脚殺)이 작용하여 늘 사고는 따르게 되며 내년에도 등산가서 조심하세요. 처권(妻權)이 강하여 공처가로 지내기 쉽습니다. 결혼은 2015년 10월에 연분이 되어 성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3일 (음 6월 27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마음 비우면 행복이 온다. **60년생** 아랫사람 단속에 더욱 신경 써라. **72년생** 불청객이 갑자기 나타나 신경 쓰인다. **84년생**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라.

49년생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61년생**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73년생** 영업사원은 대박이 터져 황홀한 하루~. **85년생** 분수를 알면 손해는 없다.

50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 생긴다. **62년생** 세세한 것보단 큰 그림을 보라. **74년생** 의욕이 넘치면 충돌이 따른다. **86년생** 연인의 생각도 못한 선물에 오~해피.

51년생 주변의 걱정 잊지 말라. **63년생** 어렵지만 새로운 희망도 발견한다. **75년생** 운전대 잡을 땐 졸음운전 조심~. **87년생** 상사의 칭찬에 힘든 일도 즐거워진다.

52년생 불편한 자리는 사양할 것. **64년생** 목적지로 한 걸음 더 들어간 격이다. **76년생** 마지막 카드는 함부로 던지지 말라. **88년생** 사랑이 깊으면 믿음이 채워진다.

53년생 배우자와 보람찬 하루 보낸다. **65년생** 사소한 것은 양보하고 큰 것 노려라. **77년생** 눈에 번쩍 뜨이는 정보 얻는다. **89년생**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해보라.

42년생 이웃과 다투지 않도록 조심~. **54년생** 덕담은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66년생** 힘 있는 자 곁다리에 끼어주길 바라지 말라. **78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43년생 부드러움이 강한 것 이긴다. **55년생** 치받는 아랫사람은 단호히 대처할 것. **67년생** 아픔을 딛고 희망을 쏜다. **79년생** 상대가 강할 땐 힘보단 지략으로 맞서라.

44년생 자손의 경사 기대하라. **56년생** 자녀의 고집에 진퇴양난이다. **68년생** 운기 좋으니 가뿐한 마음으로 도전하라. **80년생** 교류는 넓혀지고 인맥도 두터워진다.

45년생 높은 곳 출입은 삼가라. **57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곧 듣는다. **69년생** 민감한 일은 중립적 위치 고수할 것. **81년생** 허욕을 부리다간 망신만 당한다.

46년생 자녀가 기다리던 소식 전한다. **58년생** 내일 위해선 당장 손실 감수할 것. **70년생** 자영업자나 영업사원 길하다. **82년생** 운기가 열렸으니 포부를 키워라.

47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 피곤~. **59년생** 기복 없이 순탄한 하루 보낸다. **71년생** 길이 사방팔방으로 뚫려 거침없는 질주~. **83년생** 최선 다하면 성과는 따라온다.

류현진 11승 후반기 상큼한 스타트

피츠버그·샌디에이고·애리조나 천적 굳히기… 팀 내 다승 공동선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다저스)이 후반기 첫 등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시즌 11승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2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5안타와 볼넷 하나를 내주고 2실점으로 막아 다저스의 5-2 승리를 이끌었다. 삼진은 5개를 잡았다.

올 시즌 전반기 18경기에 나서 10승 5패, 평균자책점 3.44를 기록한 류현진은 후반기 첫 출전 경기인 이날 다저스가 5-2로 앞선 8회말 수비 때 브라이언 윌슨과 교체돼 시즌 11승(5패)을 챙겼다.

시즌 14번째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에도 성공한 류현진은 클레이턴 커쇼(11승 2패), 잭 그레인키(11승 6패)와 함께 팀 내 다승 공동 선두가 됐다.

시즌 평균자책점도 3.39로 조금 떨어뜨렸다. 류현진은 이날 98개의 공(스트라이크 66개)을 던졌다.

여기에 류현진은 이날 승리로 천적으로 상대를 세 팀으로 늘렸다. 류현진은 올해 2승과 지난해 1승을 합쳐 피츠버그를 상대로 3전 전승, 평균자책점 2.79를 기록했다. 특히 메이저리그 통산 개인 이정표에 남을 첫 승(2013년 4월 7일), 20승(2014년 5월 31일), 25승 등 굵직한 승리를 모두 피츠버그를 제물로 장식했다.

또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경쟁 중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올해 유독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 3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0.47로 '짠물투'를 자랑했다. 지난해 평균자책점 4점대로 고전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류현진은 2경기에서 전승, 평균자책점 0으로 쾌투해 1년 만에 '방울뱀 군단'을 발밑에 굴복시켰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천적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경쟁중인 샌디에이고와 애리조나에 이어 피츠버그까지 포함된 것이다. 포스트시즌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피츠버그를 상대로 류현진이 전승을 구가하면서 '가을 잔치'에서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자신 있게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현진, 원정경기의 전사"

현지 매체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류현진이 올 시즌 원정에서 7승 2패, 평균자책점 2.73을 기록하자 "원정구장은 승리가 기다리는 곳"이라며 "류현진은 원정경기의 전사"라고 평가했다. 홈 성적은 4승 3패, 평균자책점 4.13으로 원정에서의 성적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류현진이 피츠버그의 6경기 연속 홈경기 승리 행진을 끊었다"며 류현진의 원정경기 성적을 강조했다.

경기 후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의 슬라이더, 커브가 아주 좋았다. 빠른 볼과 전반적인 투구 밸런스 모두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해 잭 그레인키, 클레이턴 커쇼를 차례대로 내고도 1승 2패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냈다. 자칫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싸움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류현진은 호투로 팀 분위기를 다시 상승세로 돌려놨다.

다저스는 이날 마이애미 마린스에 2-3으로 패한 서부지구 선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만 뒤진 2위로 따라붙었다.

/유순호·양성운기자 suno@metroseoul.co.kr

LPGA 태극낭자 국가대항전

첫대회… 박인비·유소연·최나연·김인경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태극낭자들이 국가대항전서 명예회복을 위해 뭉쳤다.

한국여자골프를 대표하는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최나연(27·SK텔레콤), 김인경(26·하나금융그룹)이 올해 신설된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에 출전한다. 2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메릴랜드주 케이브스 밸리 골프장에서 미국·일본 등 8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제1회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나선다.

현재 세계여자골프 단체전은 미국과 유럽 대표팀이 맞붙는 솔하임컵이 유일하다. 미국 대표팀과 아시아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인터내셔널팀이 맞붙는 렉서스컵이 지난 2008년 없어지면서 한국 선수들은 오랜만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항전에 나선다.

한국의 출전 선수는 지난 3월 31일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박인비와 유소연·최나연·김인경 등 4명이 선발됐다. 한국은 일본·스웨덴·호주와 함께 B조에, 올 시즌 맹위를 떨치는 미국은 태국·스페인·대만과 A조에 편성됐다.

사흘 동안 포볼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각 조 상위 2팀과 와일드카드를 얻은 1팀이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로 우승팀을 가린다. 경기마다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패하면 0점이 주어진다. 한국은 무난히 2라운드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로 맞붙을 가능성이 큰 미국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자 알렉시스 톰프슨, 베테랑 크리스티 커,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우승자 폴라 크리머를 내세워 한국과 우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팀에는 교포 선수인 이민지(18)가 출전해 세계정상급 선수들과 맞대결을 벌인다. /양성운기자

박은선, 러시아행 초읽기

서울시청, 로시얀카 WFC 이적 허용

여자 축구 국가대표 박은선(28·서울시청)이 러시아 여자축구 로시얀카 WFC 이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박은선의 로시얀카 이적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은선은 앞으로 메디컬 테스트와 세부 계약 사항에 대한 최종 조율 과정만 거치면 로시얀카로 이적하게 된다. 러시아에 진출하면 박은선은 올 초 첼시 레이디스(잉글랜드)로 이적한 지소연(23)에 이어 유럽에 진출하는 2호 여자 선수가 된다.

여자 선수 가운데 국내 WK리그를 거쳐 유럽구단으로 진출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시청은 박은선이 러시아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선의 러시아행은 로시얀카가 이적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박은선은 로시얀카 이적이 자신의 기량을 유럽 최고 무대에서 선보일 기회라고 보고 이적을 요청했다고 서울시청은 전했다. 서울시청은 박은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적을 허용했다.

박은선은 23일 제13회 KDB금융그룹 전국 여자선수권 결승전 후 팀과 일정을 조율하고 이르면 이번주 러시아로 출국한다.

로시얀카는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크라스노아르메이스를 기반으로 한 구단으로 러시아 여자 프로축구에서 4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 /양성운기자

프로야구 전적 22일

■ 광주

팀	1-3	4-6	7-9	계
L G	030	000	000	3
KIA	032	000	00X	5

△ 승리투수 = 양현종(11승 5패) △ 세이브투수 = 어센시오(2승 16세이브) △ 패전투수 = 리오단(6승 7패)

■ 사직

팀	1-3	4-6	7-9	계
삼성	300	020	000	5
롯데	020	010	000	3

△ 승리투수 = 밴덴헐크(11승 2패) △ 세이브투수 = 임창용(4승 2패 18세이브) △ 패전투수 = 유먼(9승 5패) △ 홈런 = 박석민 21·22호(1회2점, 5회2점·삼성)

■ 잠실

팀	1-3	4-6	7-9	계
S K	1XX	XXX	XXX	X
두산	2XX	XXX	XXX	X

우천 노게임

프로배구 전적 22일

홈			원정
LIG손해보험	3	1	한국전력
KGC인삼공사	0	3	흥국생명
OK저축은행	2	3	대한항공